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

2021.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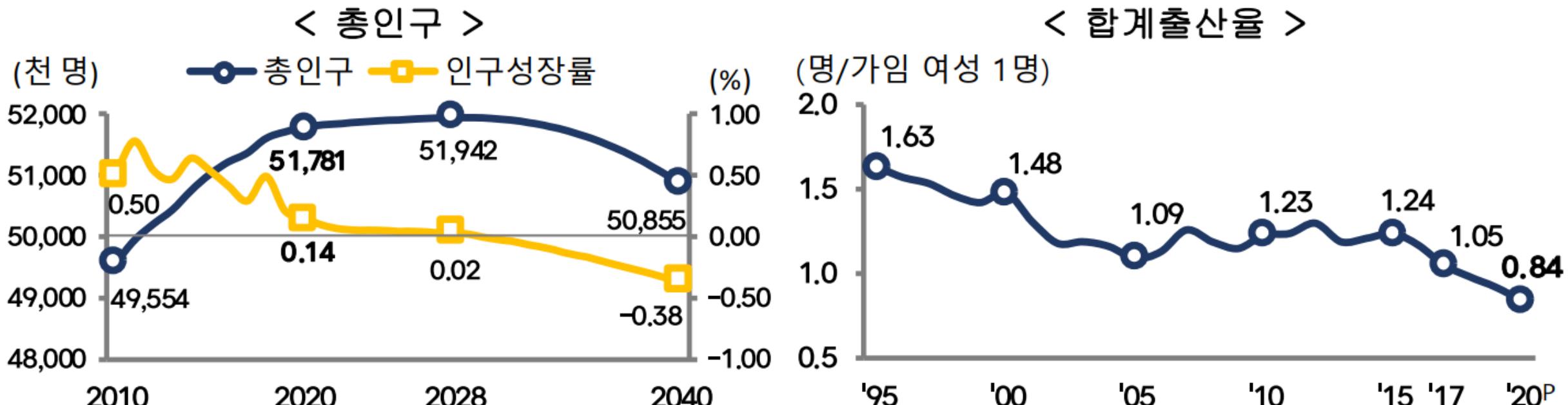
최 병 호

서울시립대학교

- 한국 사회의 현실을 대한민국 통계청이 공표하는 '사회지표'를 통해 가늠해 보고,
-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국제비교 지표를 통해 가늠해 본다.

(How is Life 2020?, Better Life Index, World Happiness Report 2021)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사망률의 완만한 감소로 미래 인구는 감소 인구가 증가하는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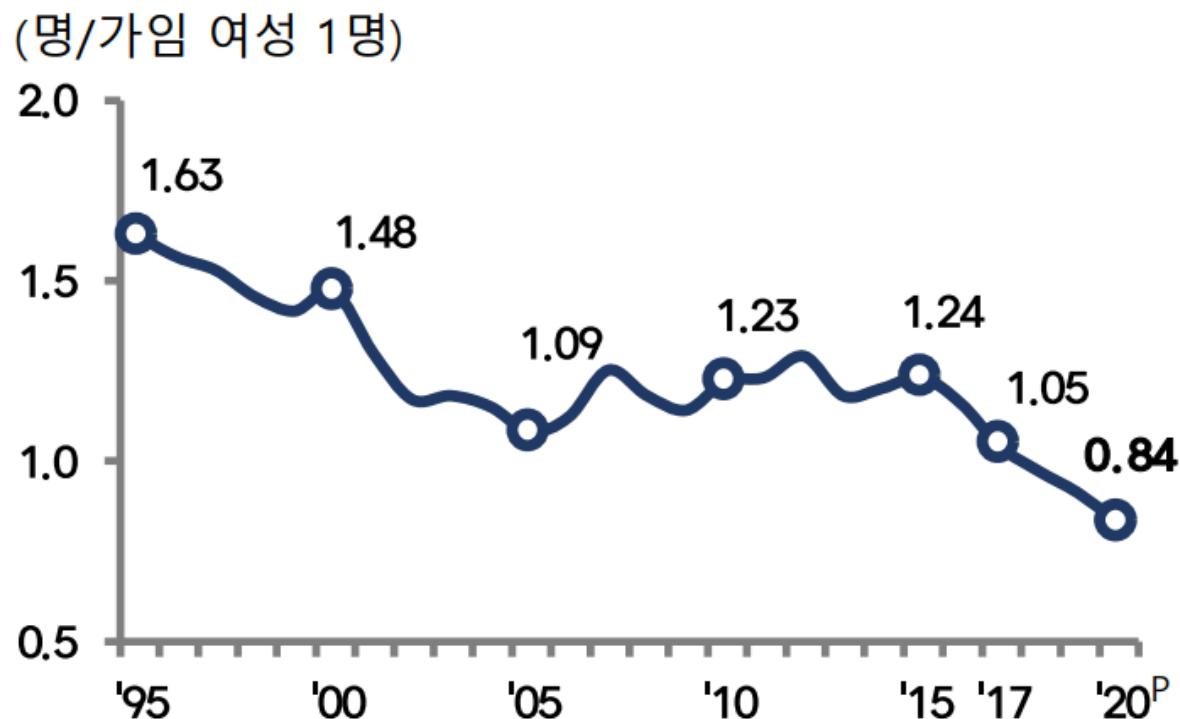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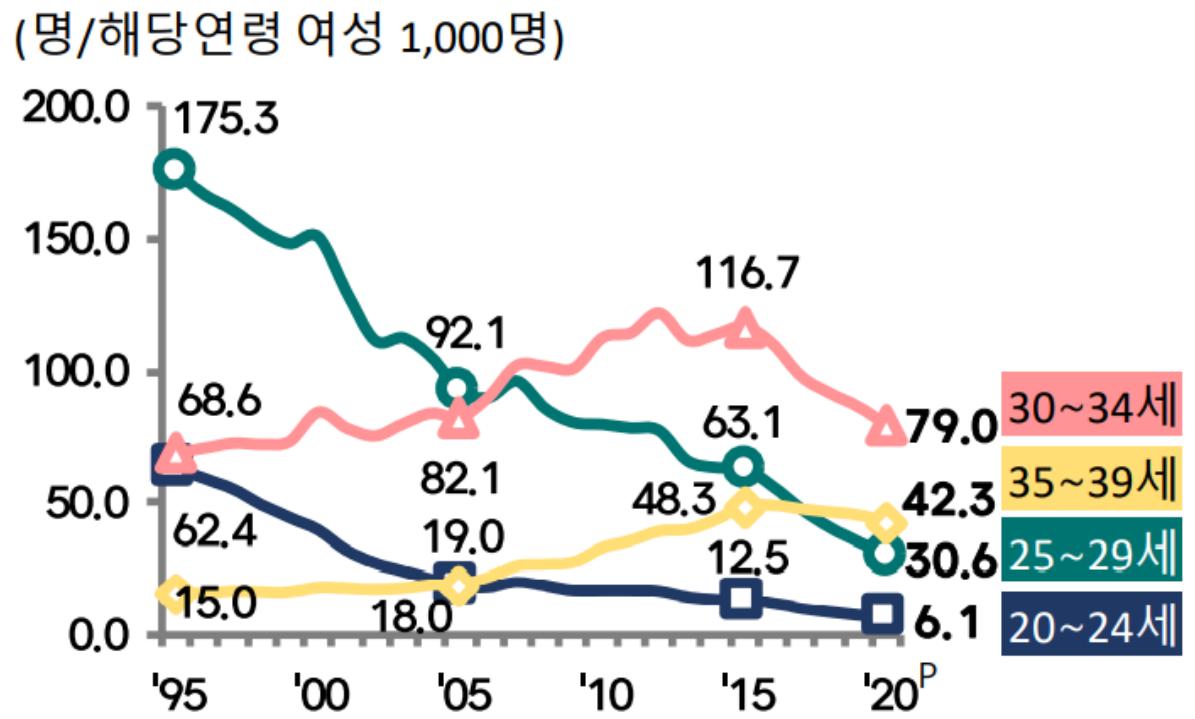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왜? 늦은 결혼, 늦은 출산, 비혼 낮은 출산율은 미래 인구 감소의 기하급수적 요인

< 합계출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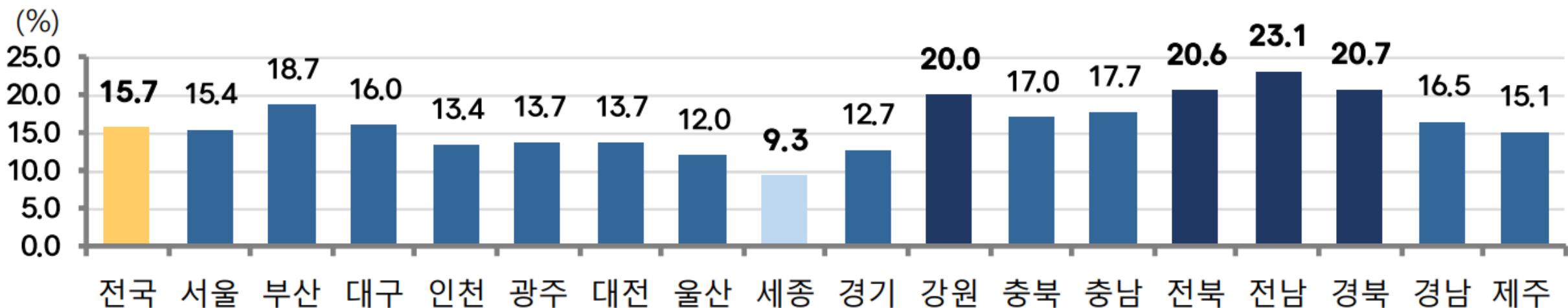
< 모의 주요 연령대별 출산율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지역의 고령화는 미래에 지역 소멸을 초래한다? 대도시의 시대는 바람직한가? 코로나19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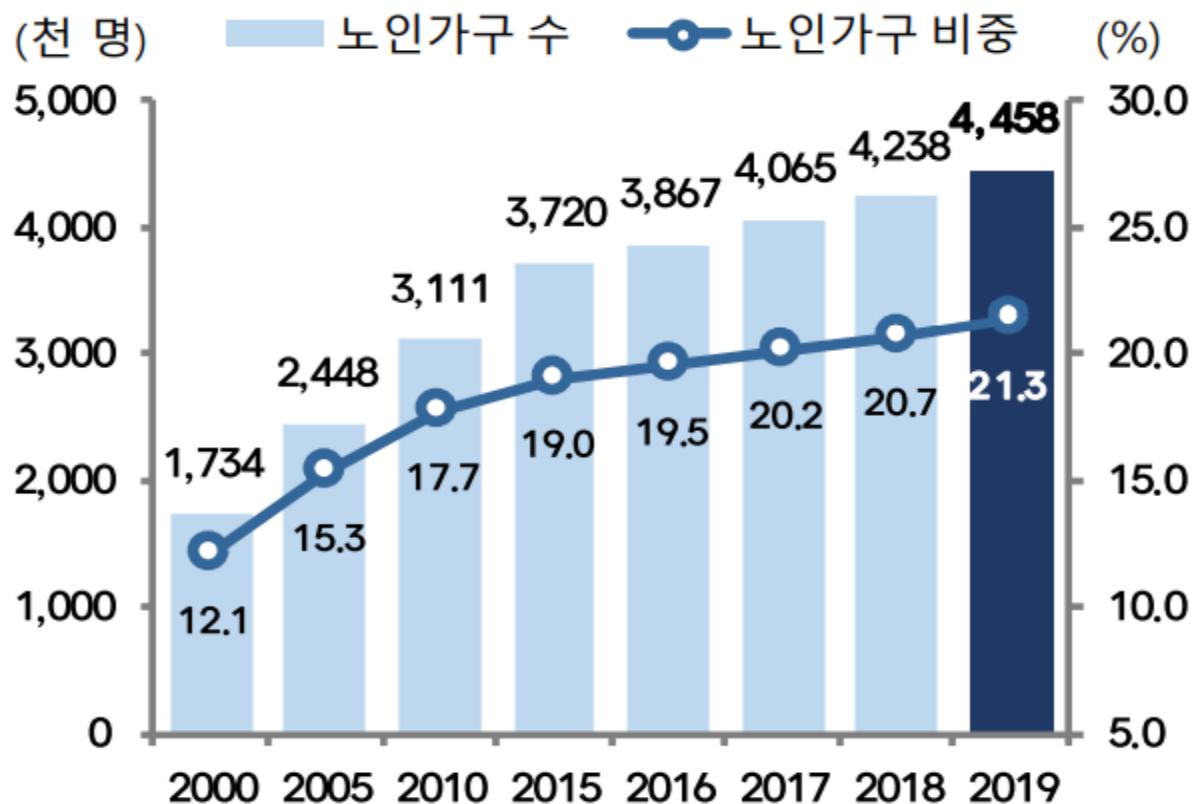
< 지역별 고령인구 구성비(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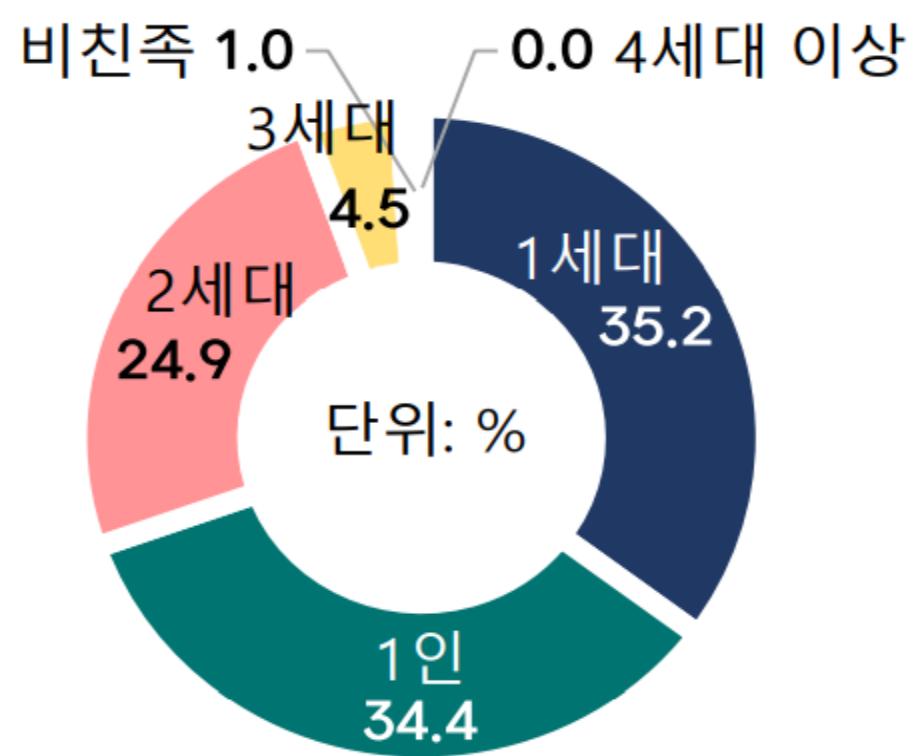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 가구가 대부분인 사회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지금도 노인가구의 70%는 자식과 살지 않는다.

< 노인가구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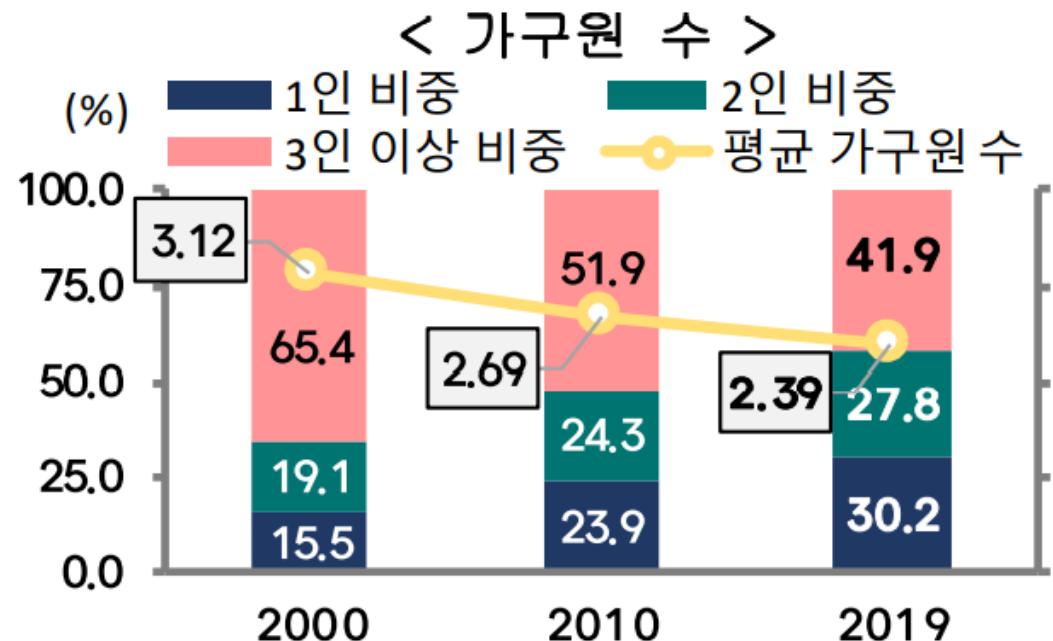


< 유형별 노인가구 구성비(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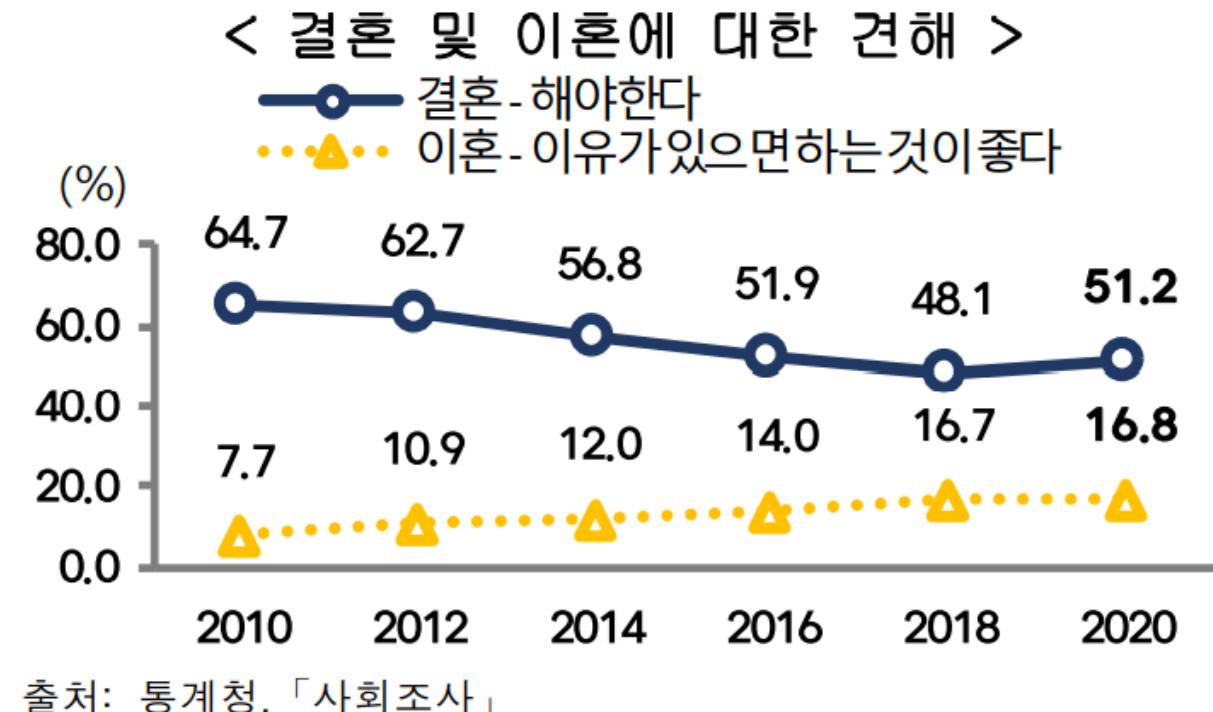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인 가구의 급증 (노인, 청년, 비혼, 이혼) 미래는 1인 가구가 대세가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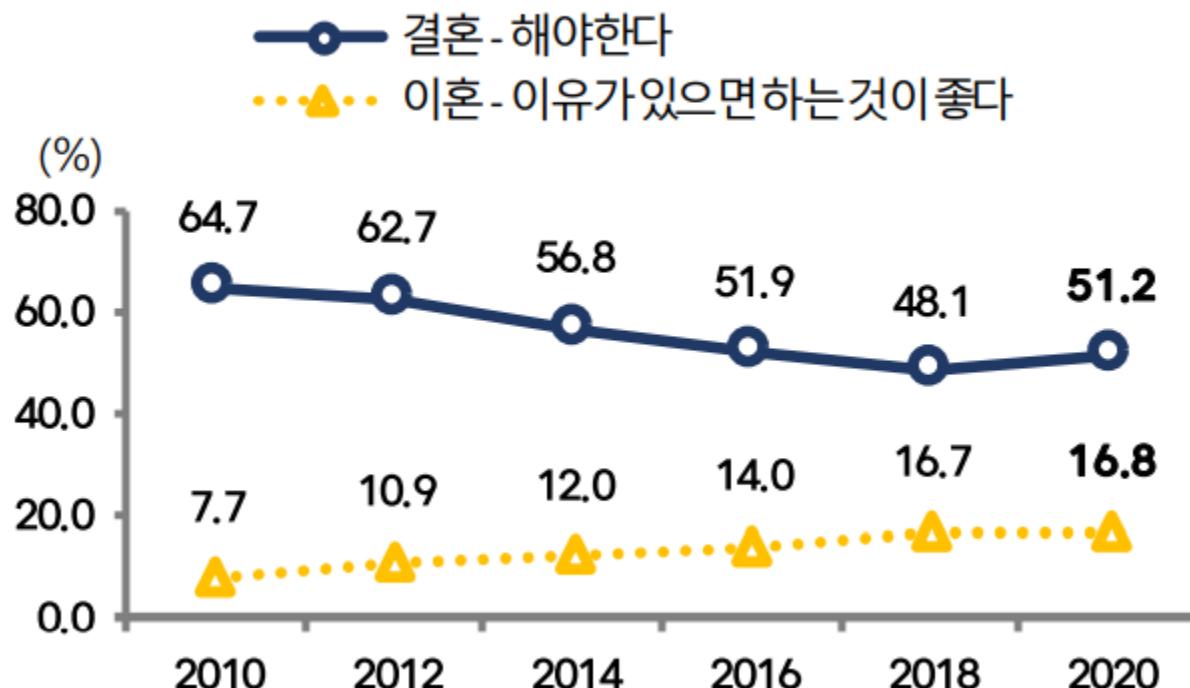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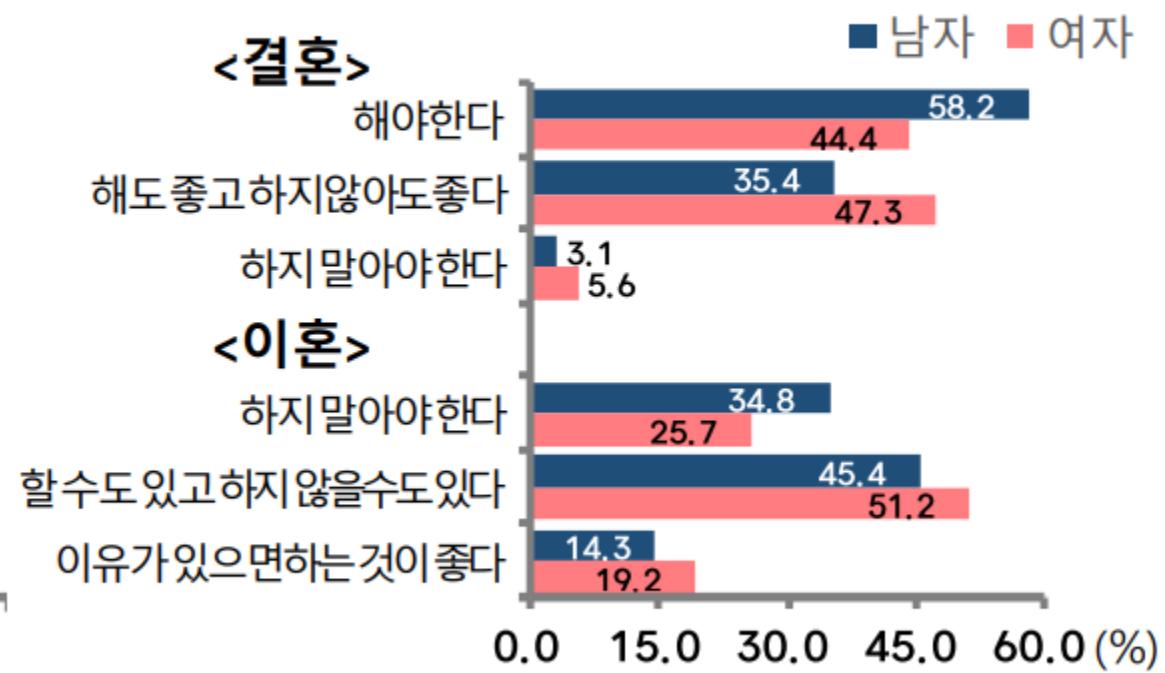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탄생-결혼-죽음’의 인생의 고리에서 결혼은 선택 ‘가족’이란 무엇인가?

< 결혼·이혼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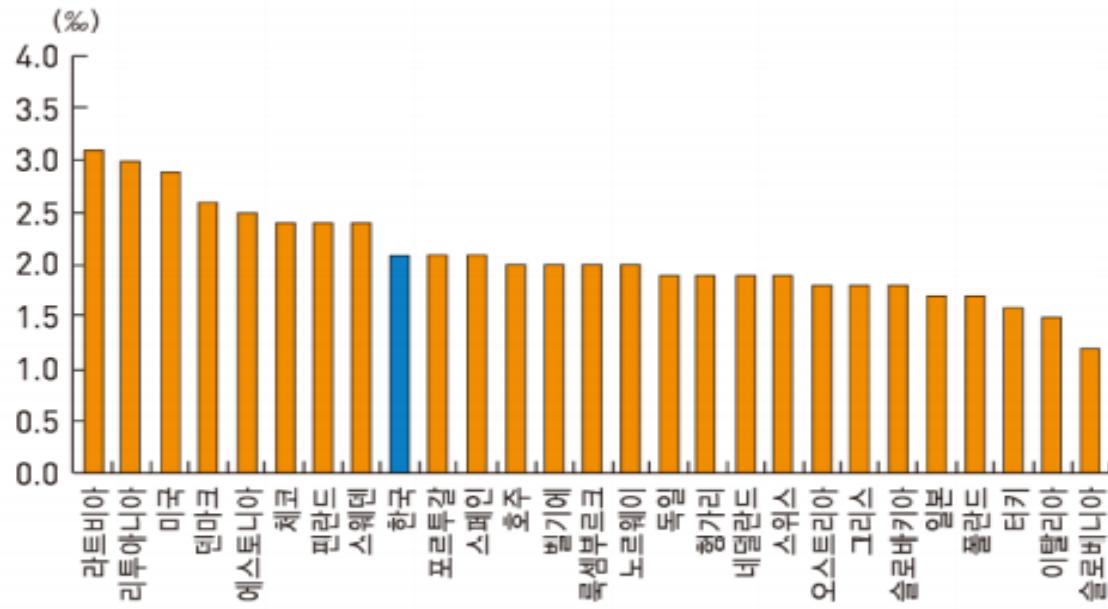
< 성별 결혼·이혼에 대한 인식(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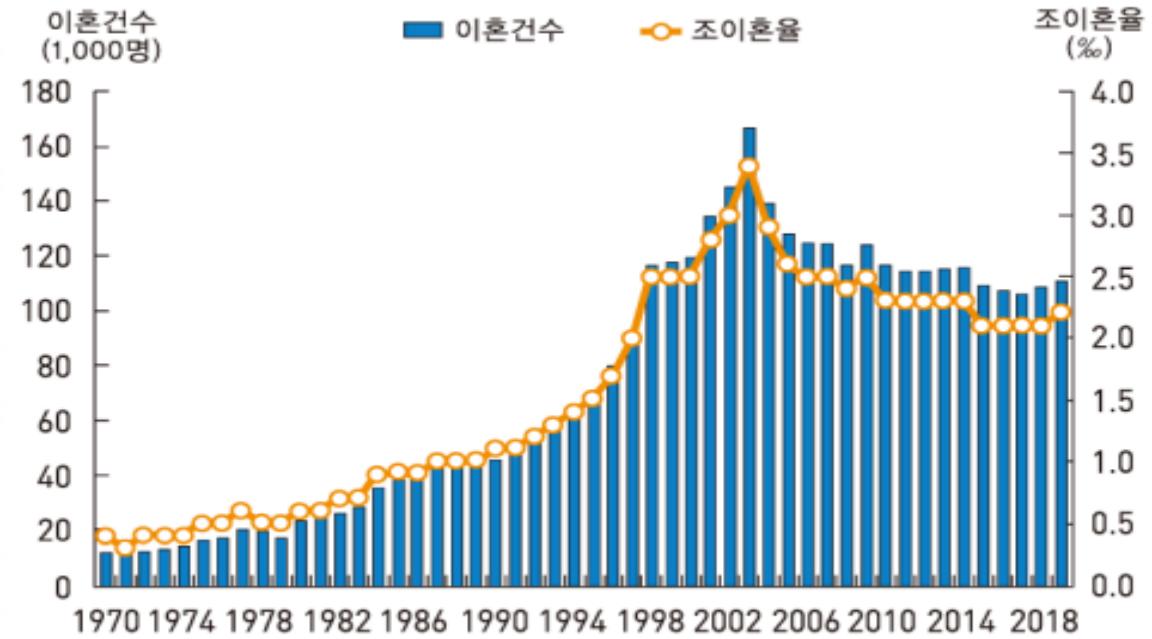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의 이혼율은 이미 상위권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이혼 급증

OECD 국가의 조이혼율, 2017



이혼건수와 이혼율, 1970–2019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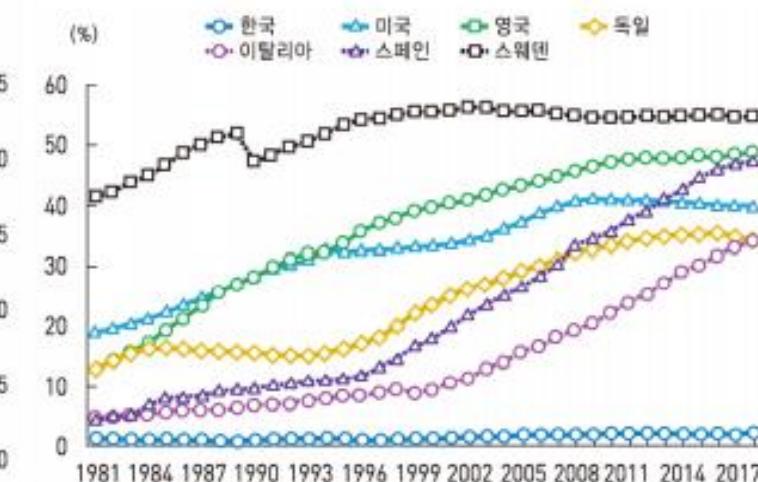
1990-2019년 기간 중 - 성별 평균 이혼연령은 상승(남: 36.8세 → 48.7세, 여: 32.7세 → 45.3세) -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이혼건수 구성비율은 가파르게 상승(남: 7.4% → 44.0%, 여: 3.1% → 32.9%)

혼외 출산?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결혼제도는 과거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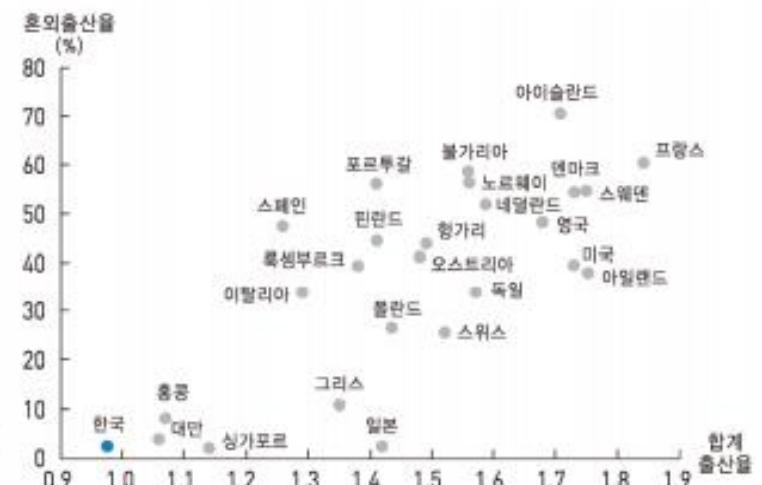
혼외출생아 수 및 혼외출산율,
1981–2019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의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8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율의 산점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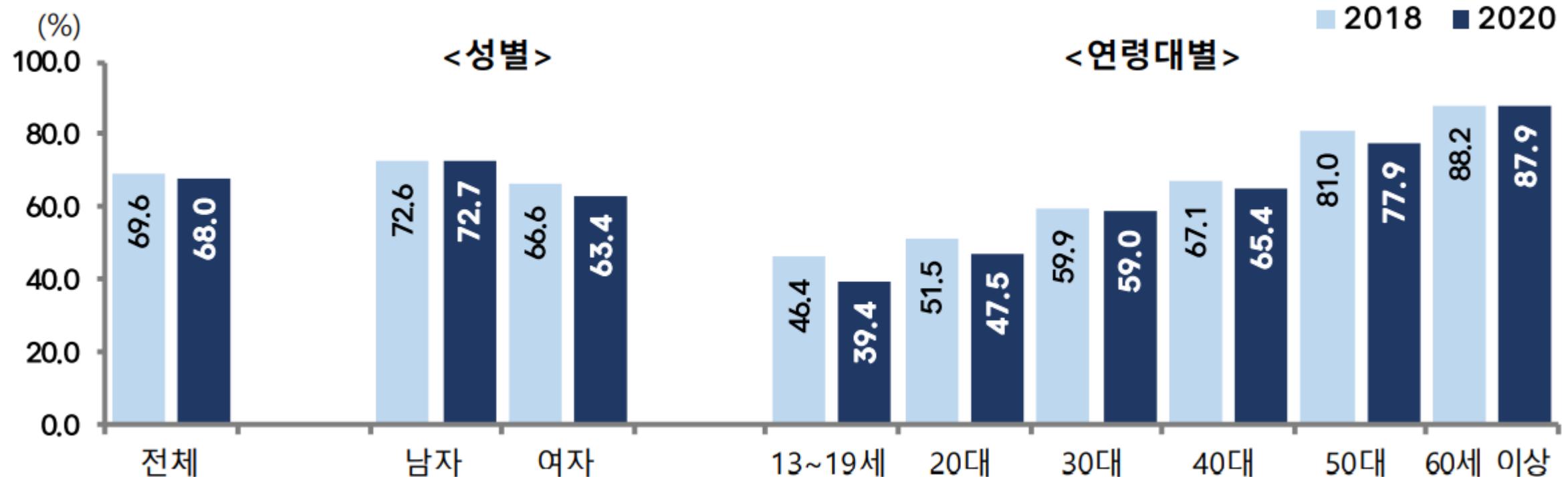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0;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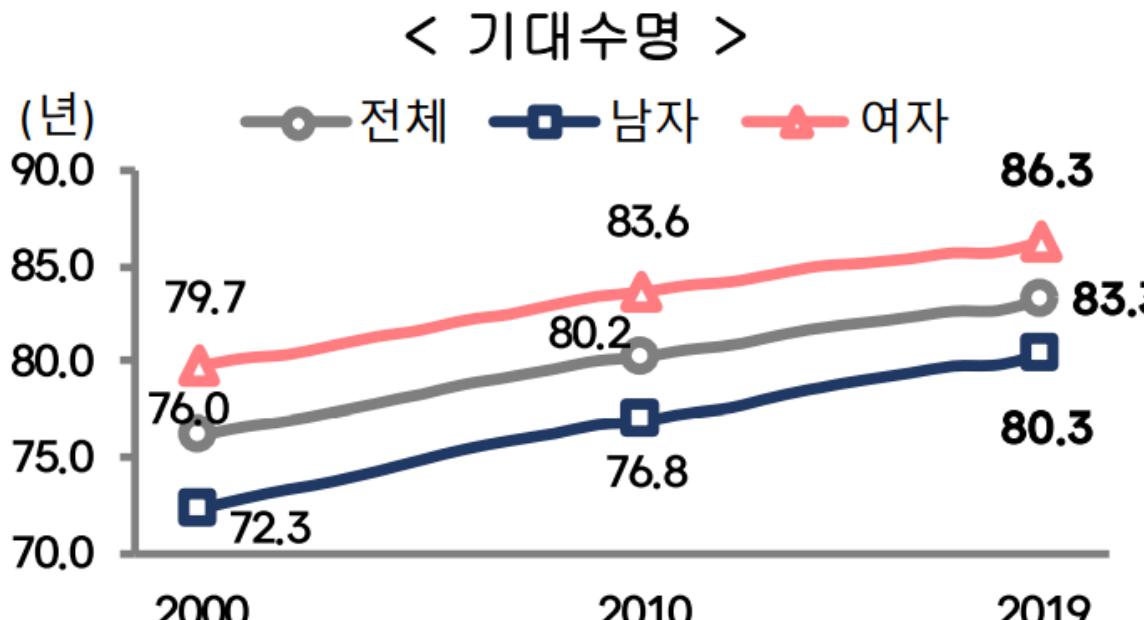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번식의 본능을 잃어버린 종? 이기적 본능? 인류의 미래

<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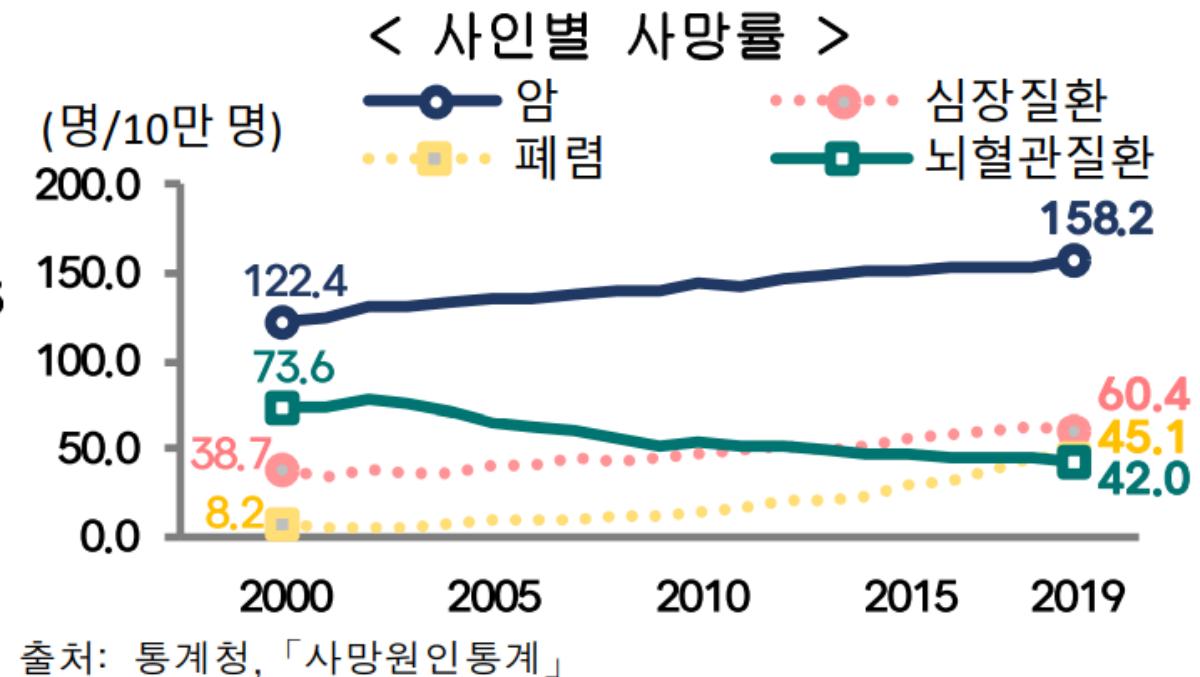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수명 증가의 끝은? 질환은 극복될 것인가? 비만, 치매, 팬데믹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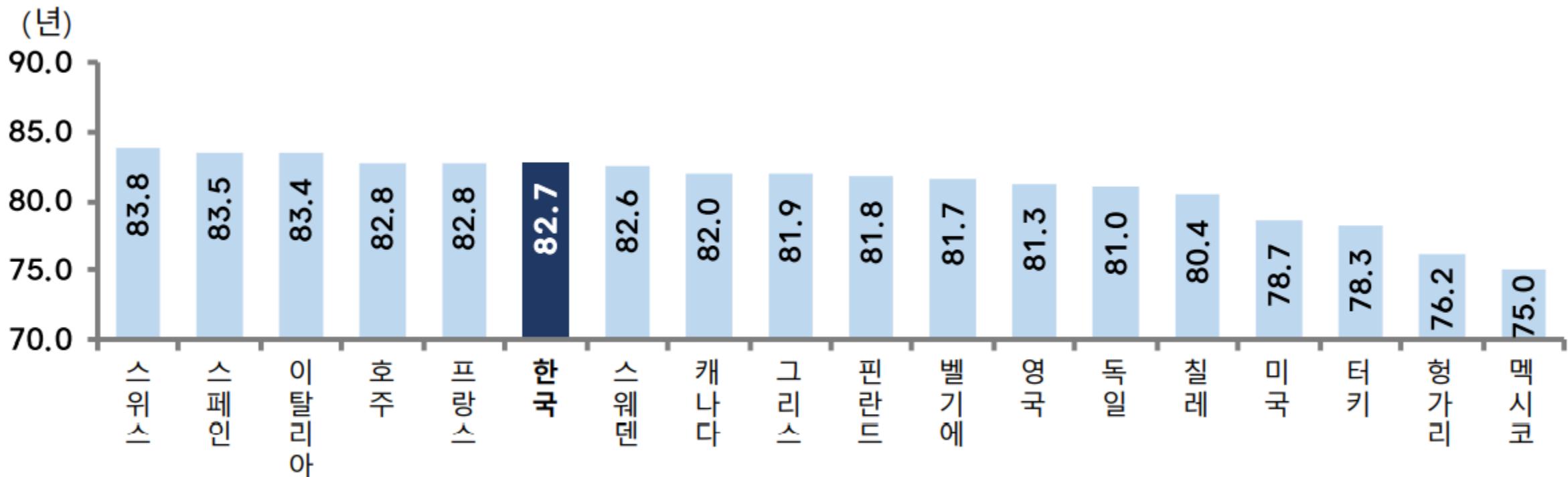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명표」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한국의 기대수명은 해방 후 급격하게 증가 2030년 최장수 국가가 된다

< OECD 주요국의 기대수명(2018)¹⁾ >



자료: OECD, 「Health Status, OECD stat」

주: 1) 일본의 기대수명은 2017년 84.2년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자료 결측으로 순위 집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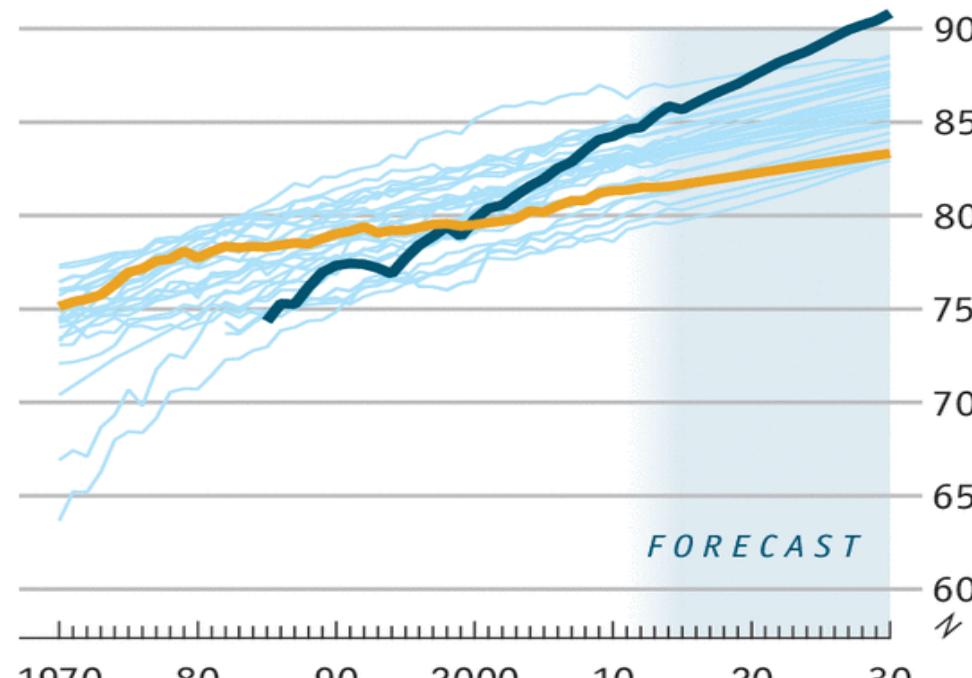
Lancet 2017, 2030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국가 .

A new study suggests South Koreans will have the world's highest life expectancy by 2030 (Lance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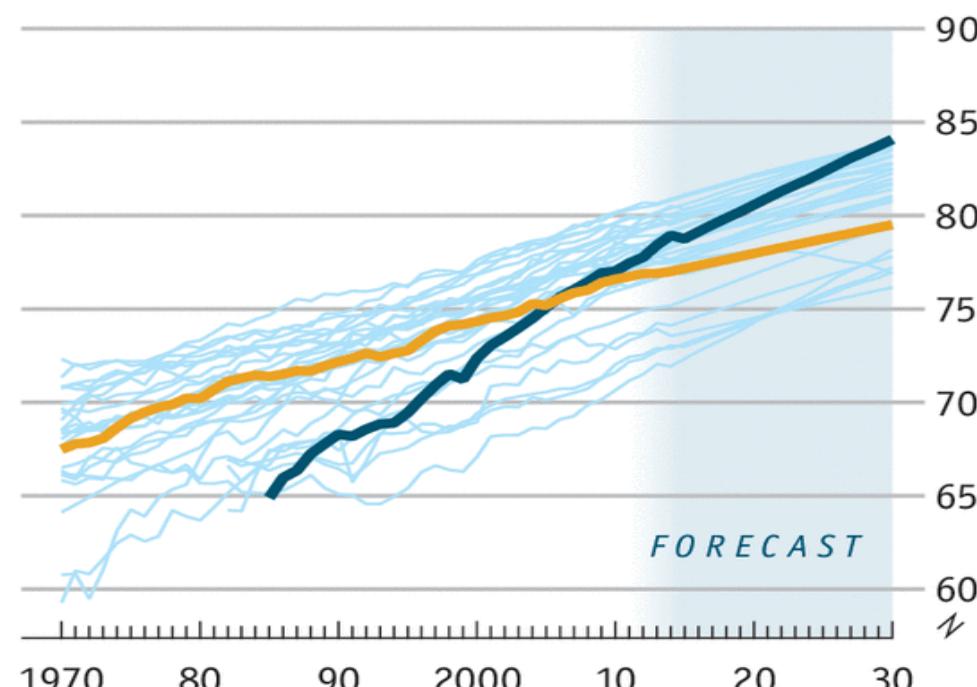
Live long and prosper

Life expectancy at birth in selected rich countries, years

Women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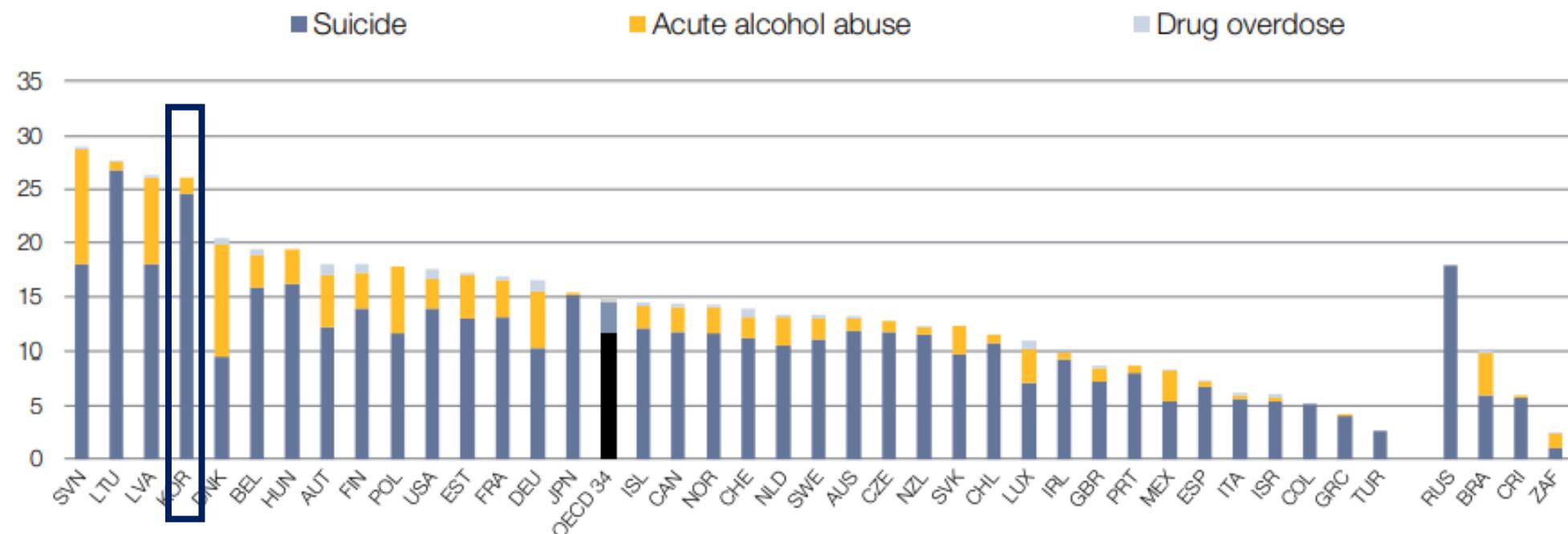


Source: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by M. Ezzati *et al.* The Lancet, February 2017

한국은 최상위의 자살 국가 자살에 눈 감고 자살에 둔감한 한국 사회의 미래는?

Figure 5. Suicide is the most common death of despair, followed by alcohol-related fatalities

Deaths from suicide, acute alcohol abuse and drug overdose, per 100 000 populatio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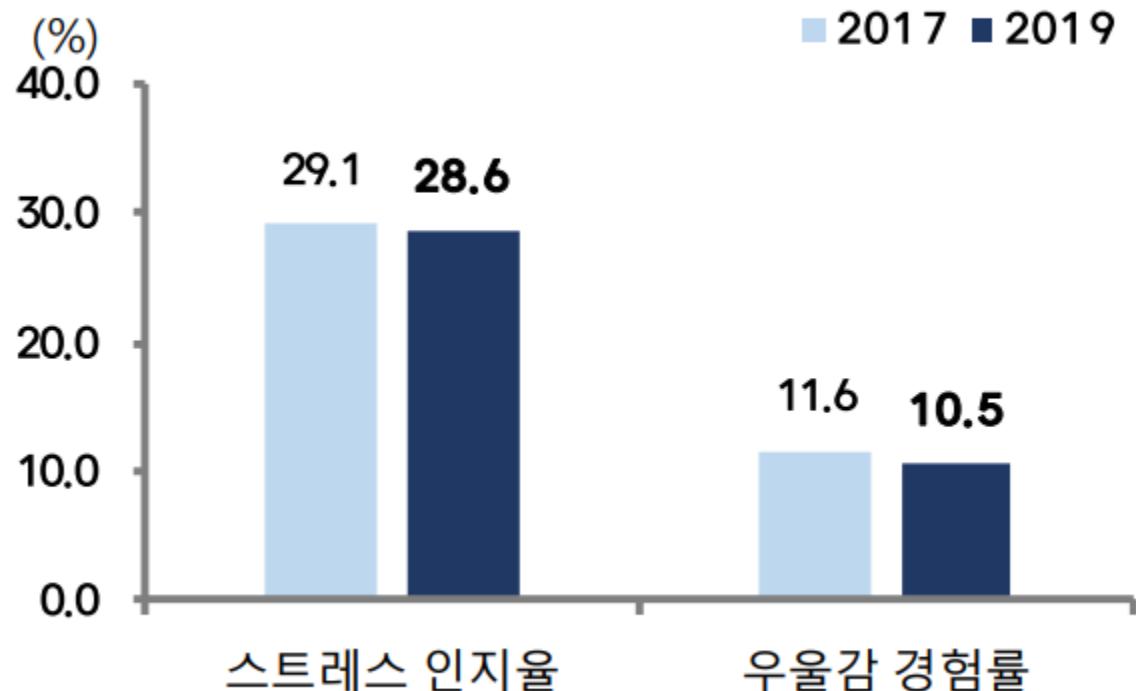
Note: Data for the Russian Federation refer to suicides only.

Source: OECD Health Status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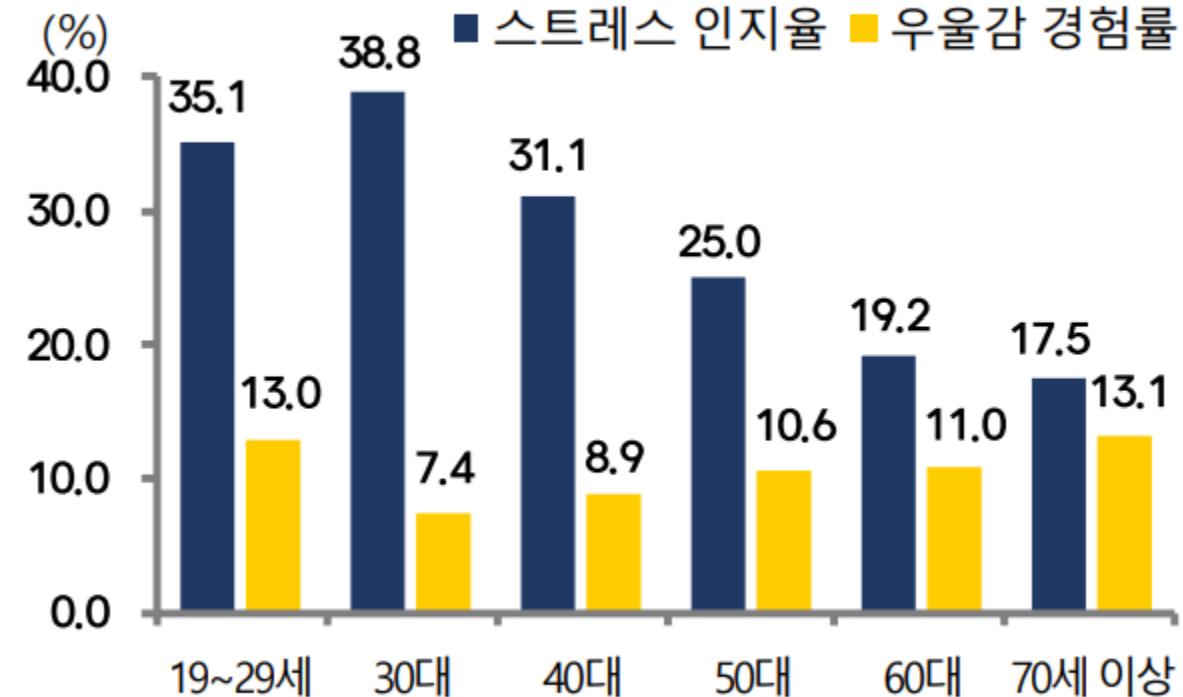
스트레스 많은 사회, 우울한 사회

청년은 스트레스 많고, 노인은 우울하다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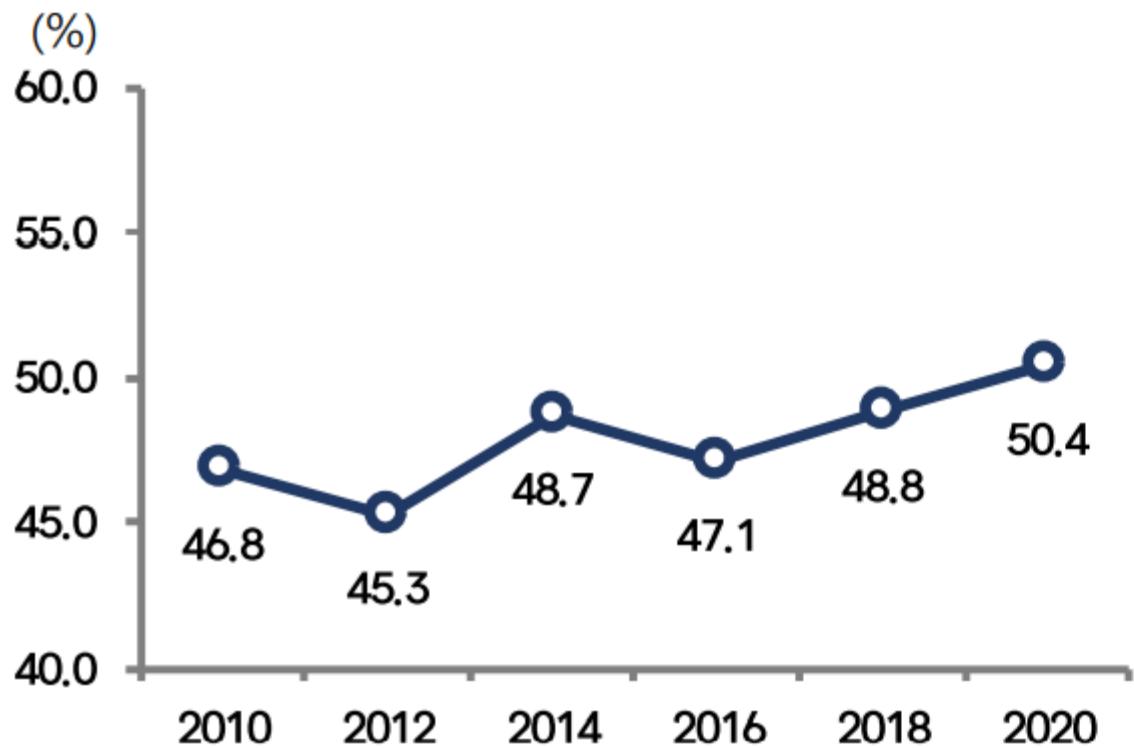
< 연령대별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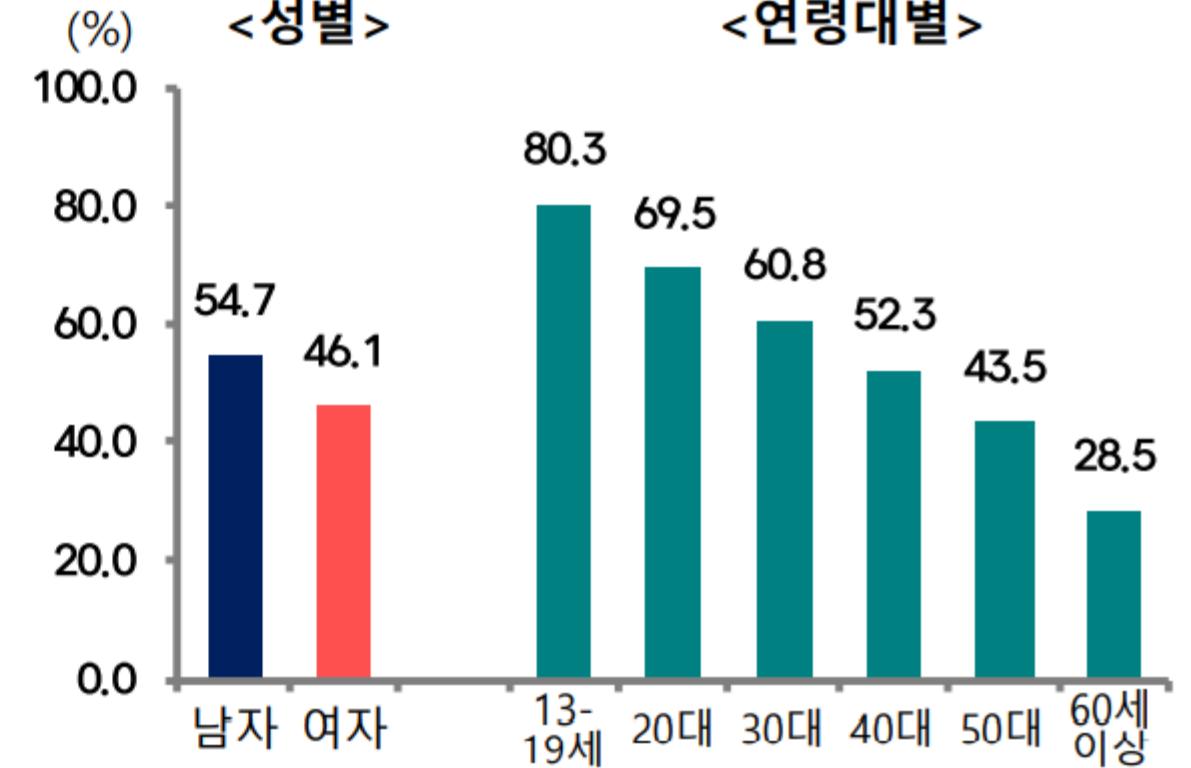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의 절반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 젊을수록 건강하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가?

< 주관적 건강 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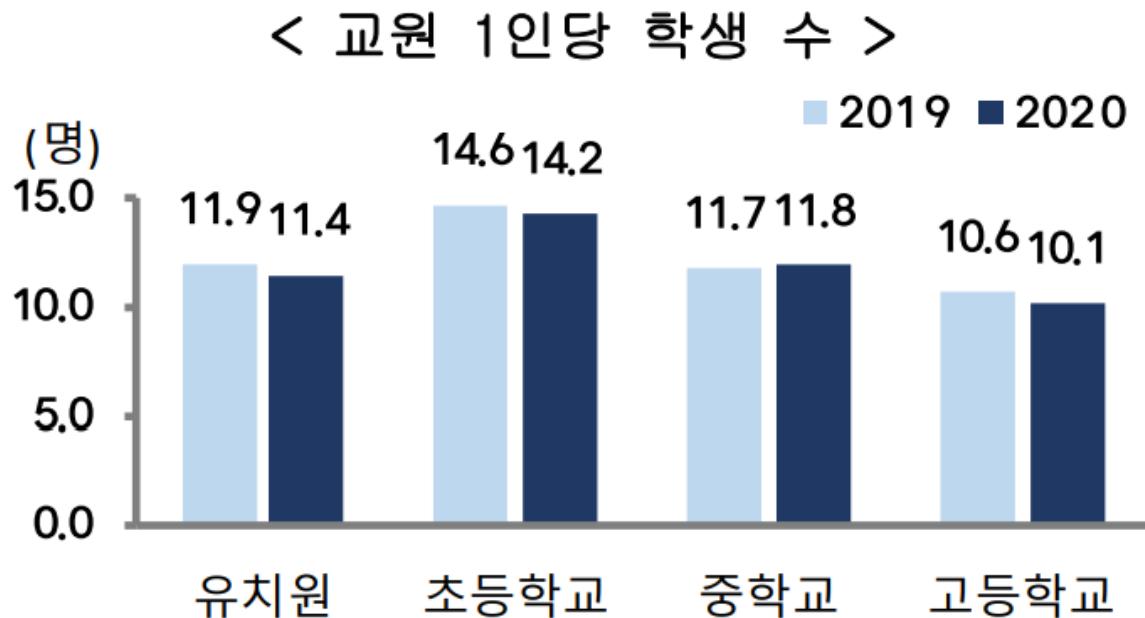


< 성 및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 상태(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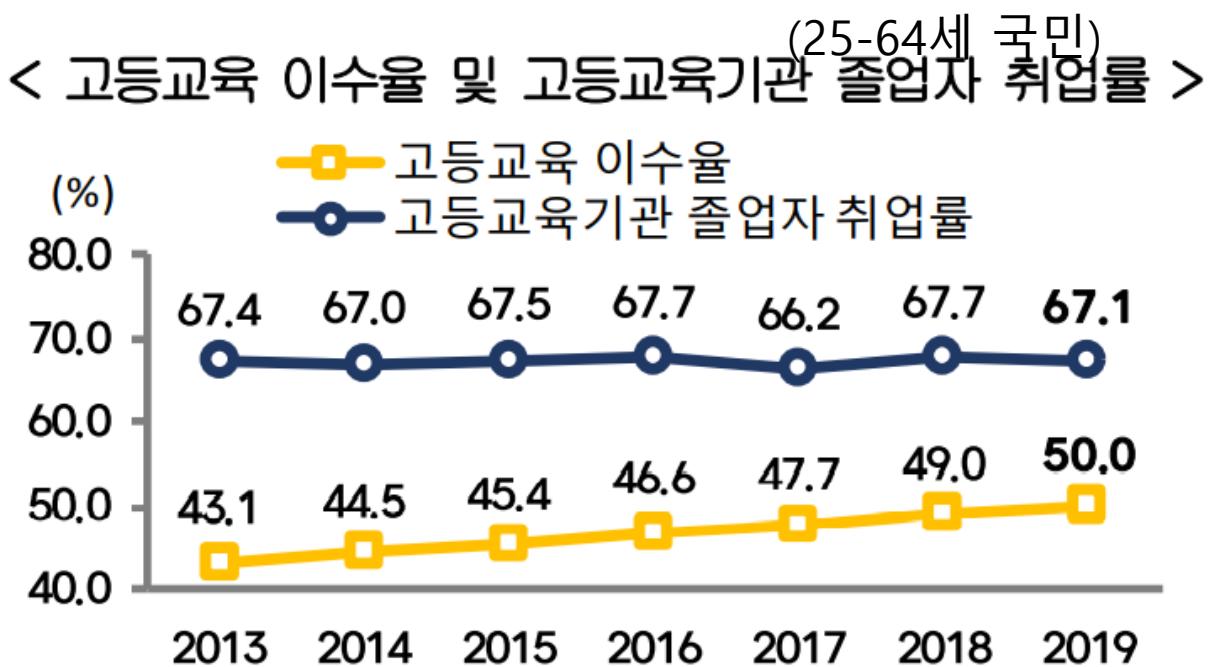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사회 미래의 노인은 지적 수준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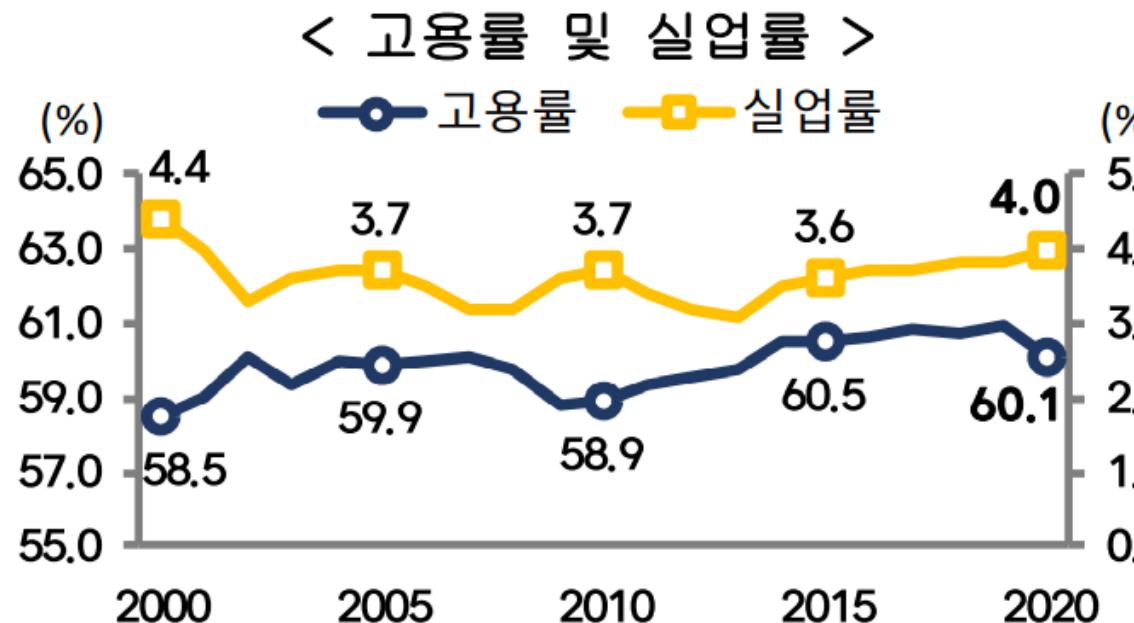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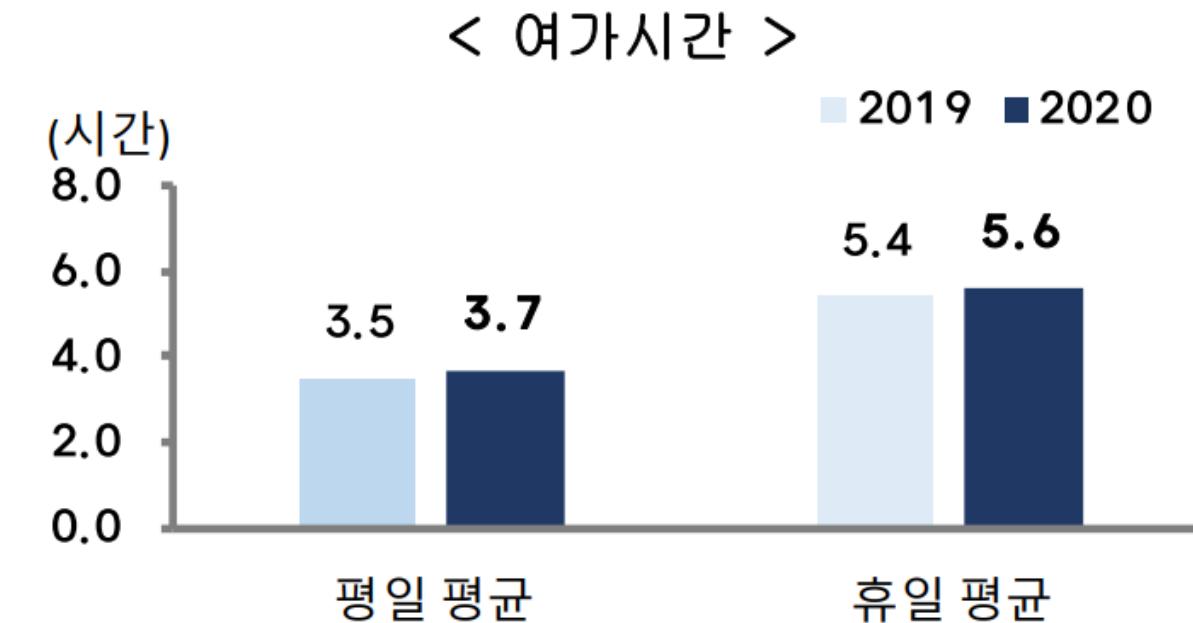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60%가 일하는 사회 미래 사회에서 일과 여가, 소득과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가?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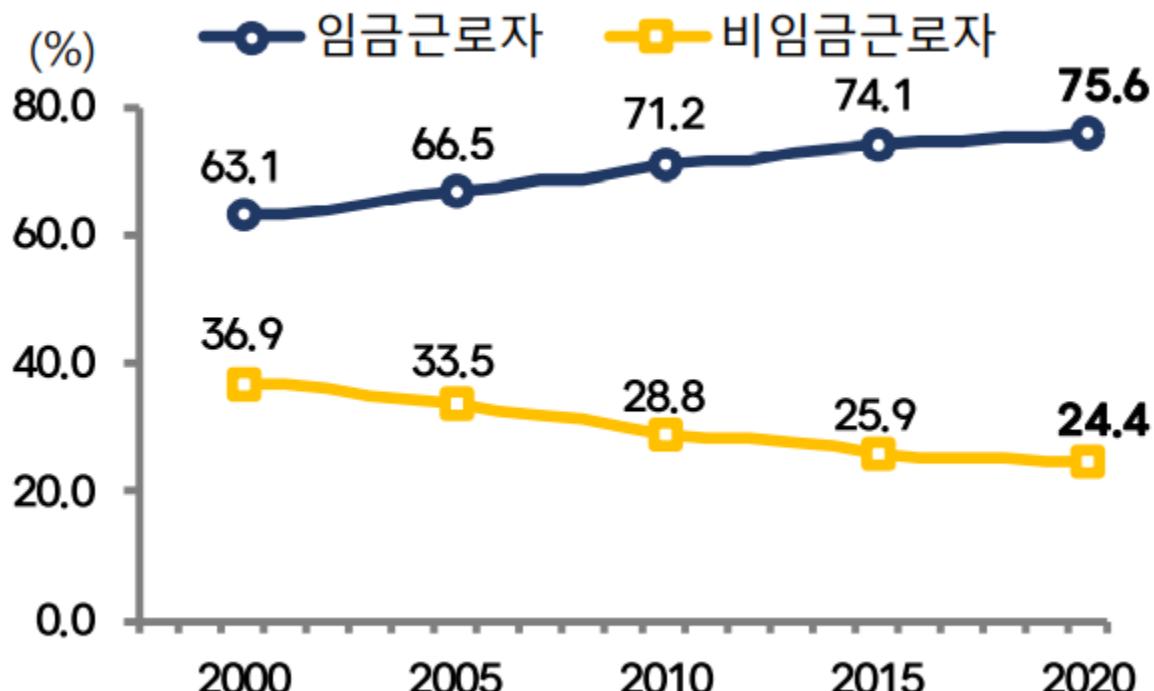
'2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69.8%, 건강보험 76.7%, 고용보험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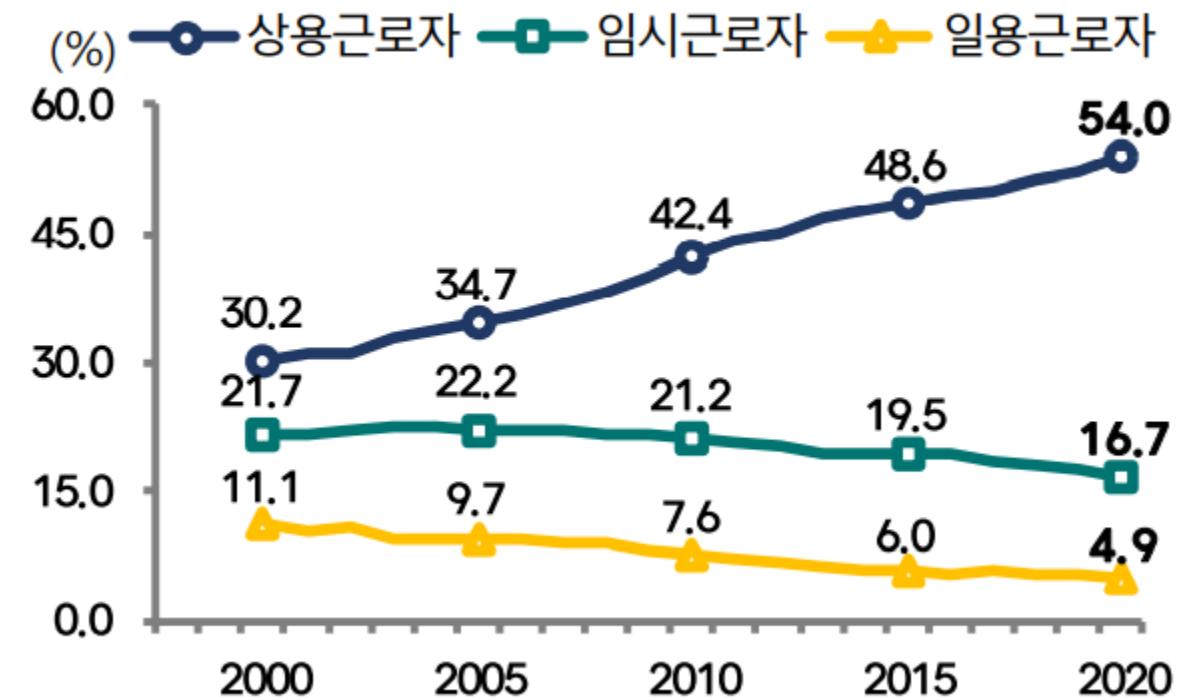
총 5세 이상 세대 10명 중 6명은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약 3명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

우리는 임금근로자, 정규직 근로자가 대세인 사회를 바라는가? 아침에 직장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하는 사회?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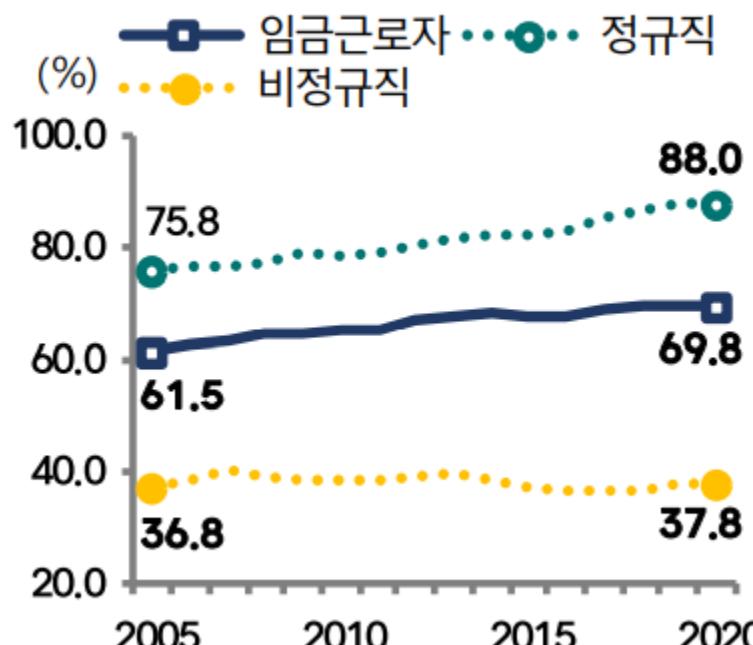
< 임금근로자의 취업자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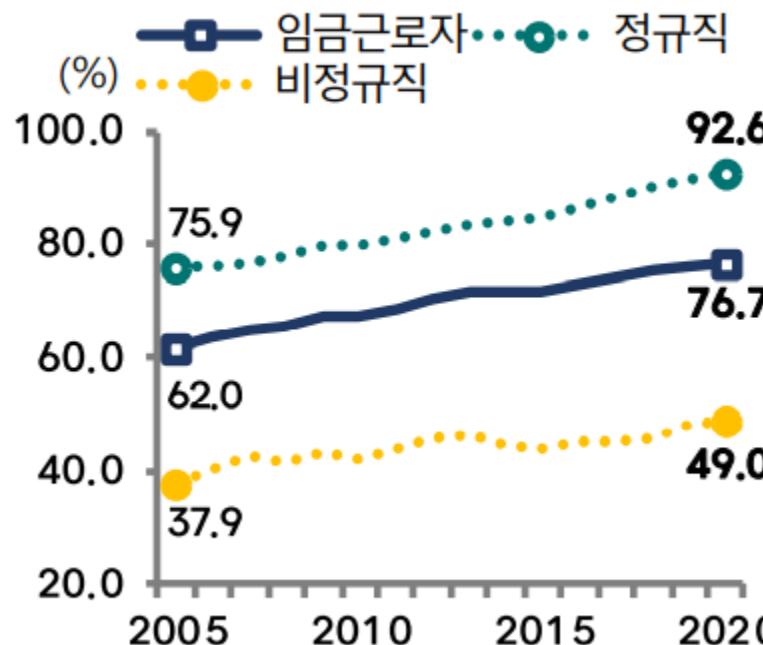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직장근로자는 '안정'의 표상인가? 4대 사회보험제도는 이대로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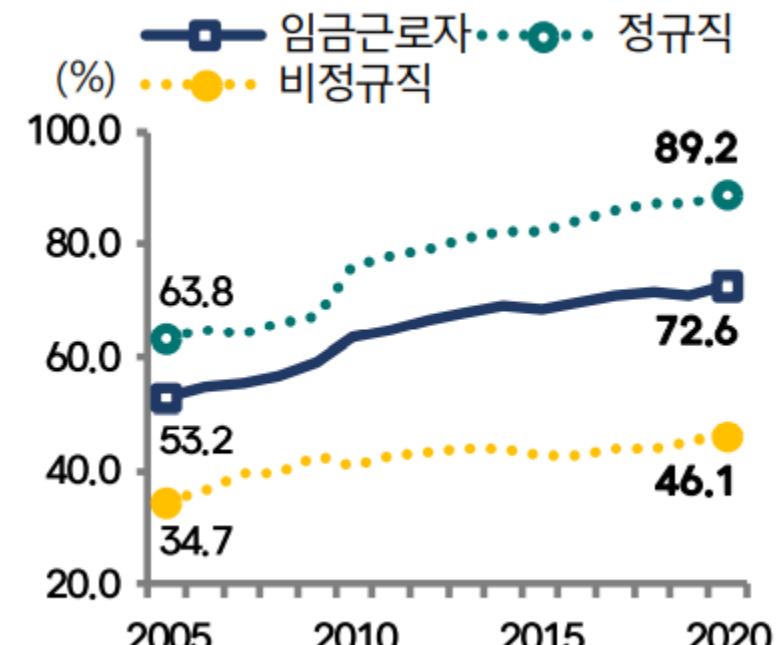
< 공적연금 가입률 >



< 건강보험 가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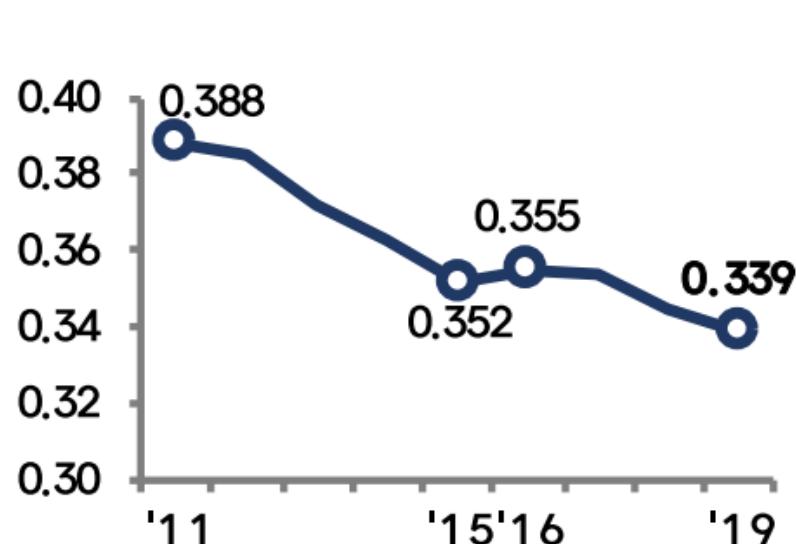
< 고용보험 가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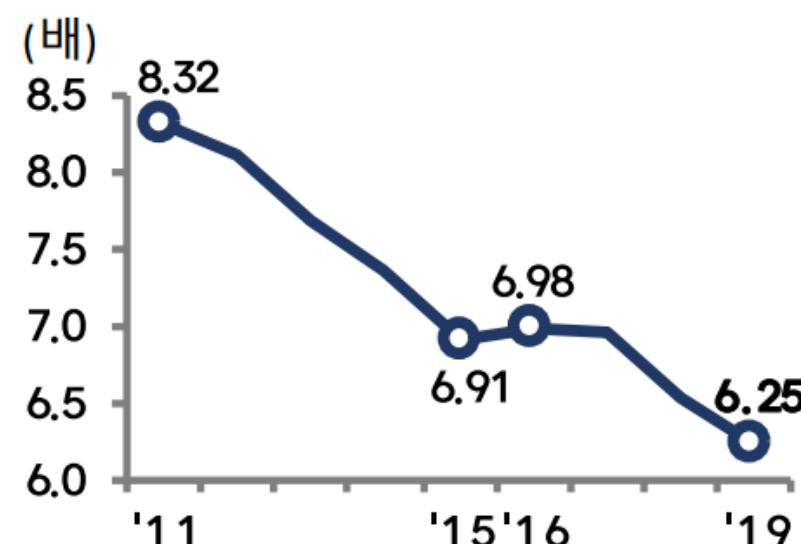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득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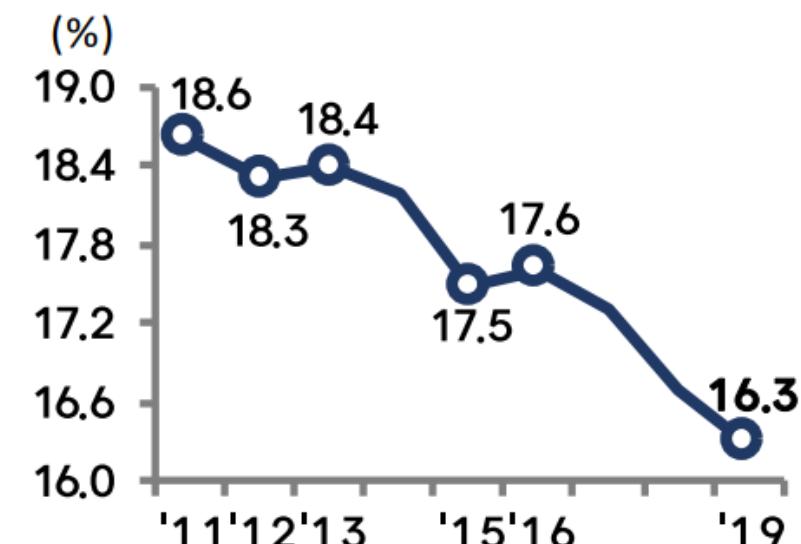
< 지니계수 >



< 소득 5분위 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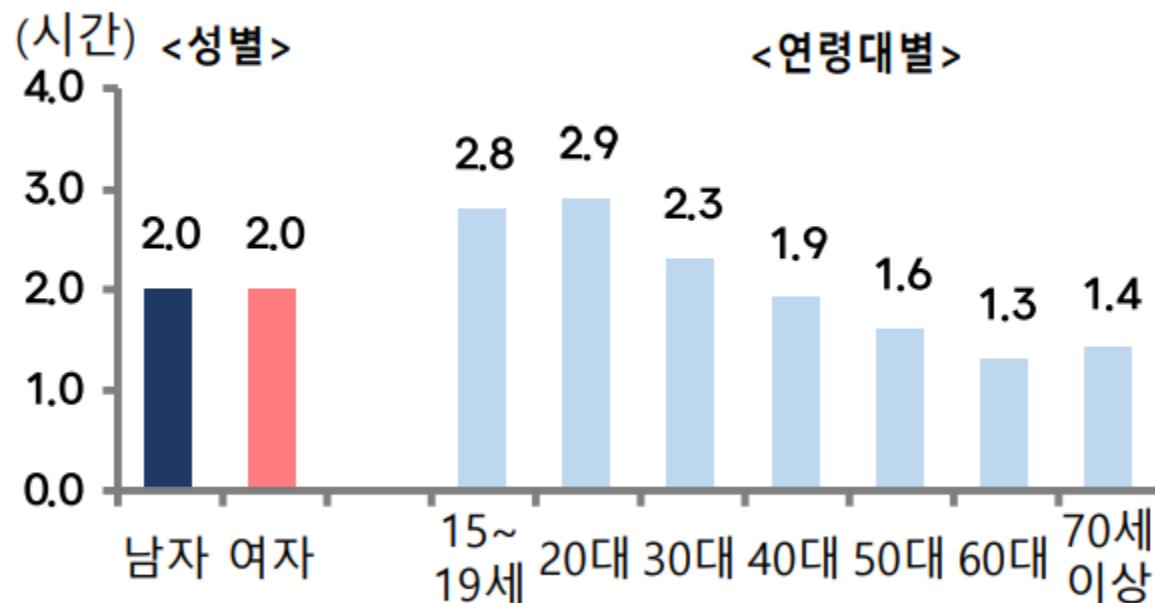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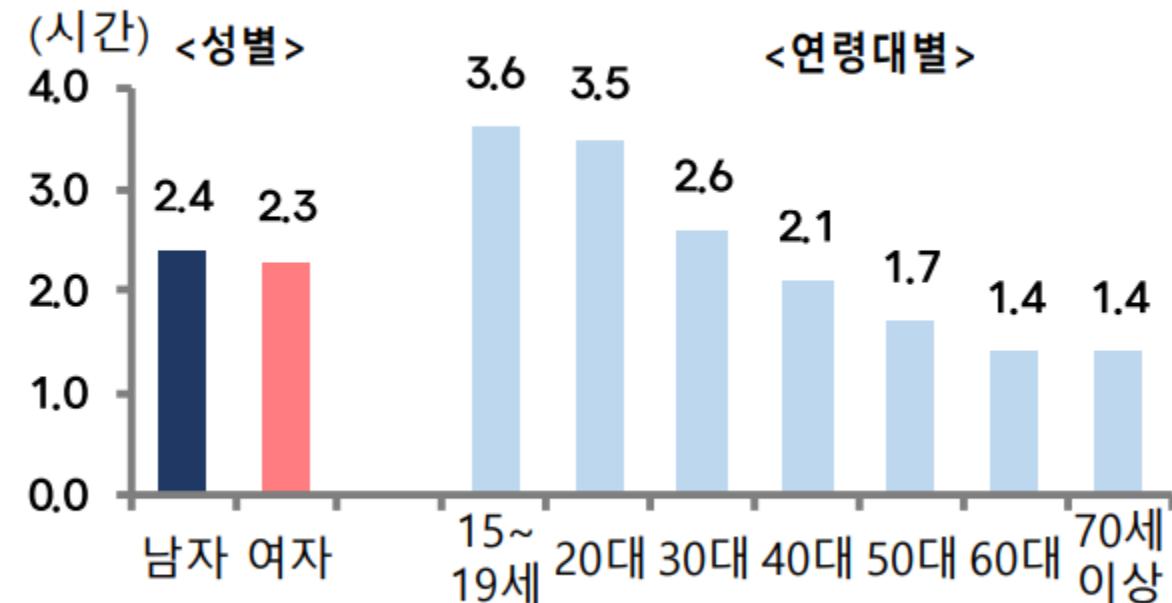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고령화의 함정?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 노인이 주류가 될 미래 사회의 모습은?

< 성 및 연령대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2020, 평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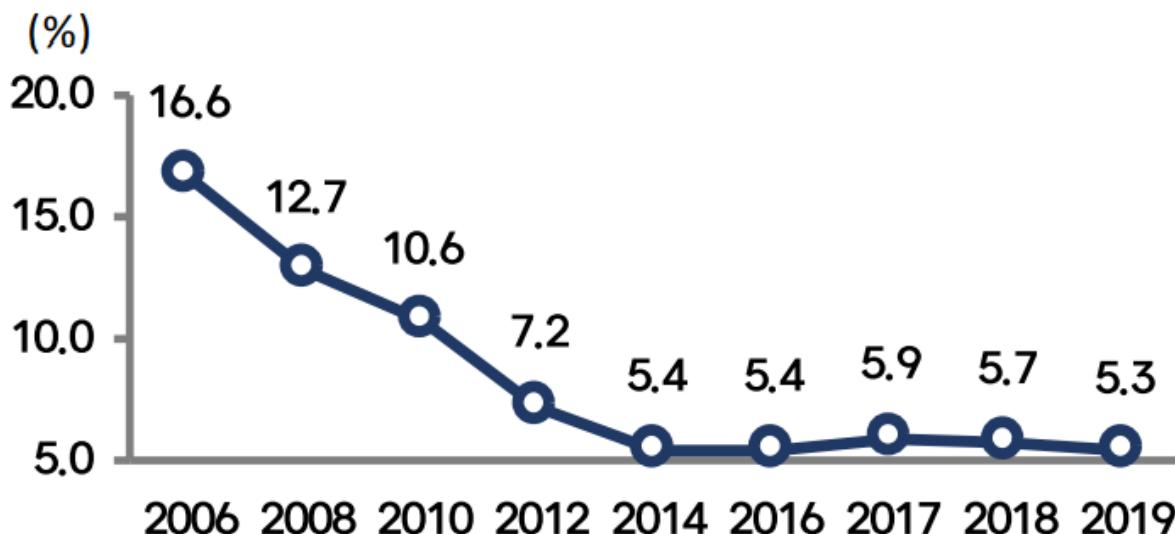
< 성 및 연령대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2020, 휴일)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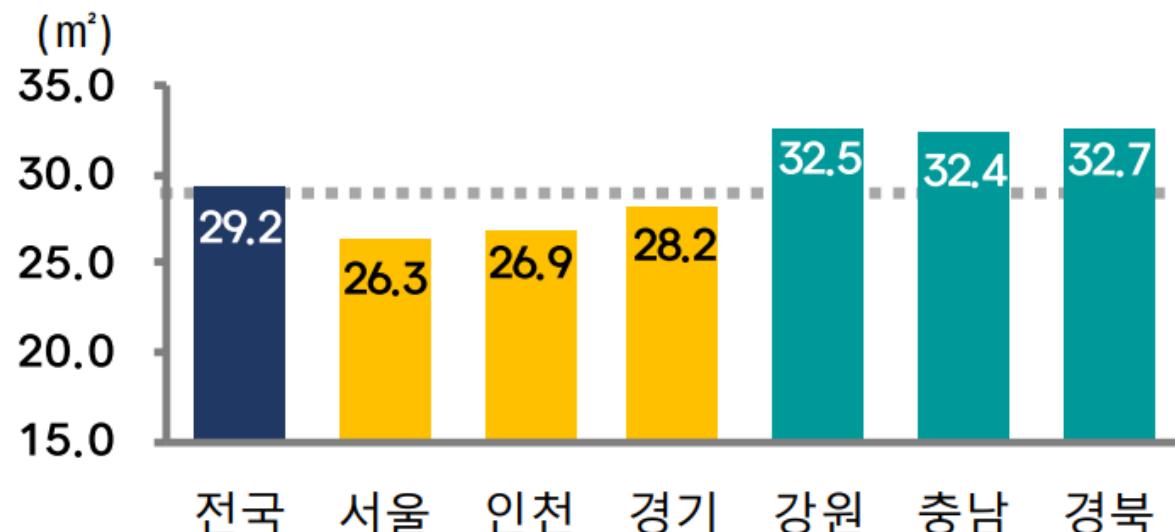
주거의 기대수준은 상승하고 있다 괜찮은 아파트 거주가 모두의 꿈인가?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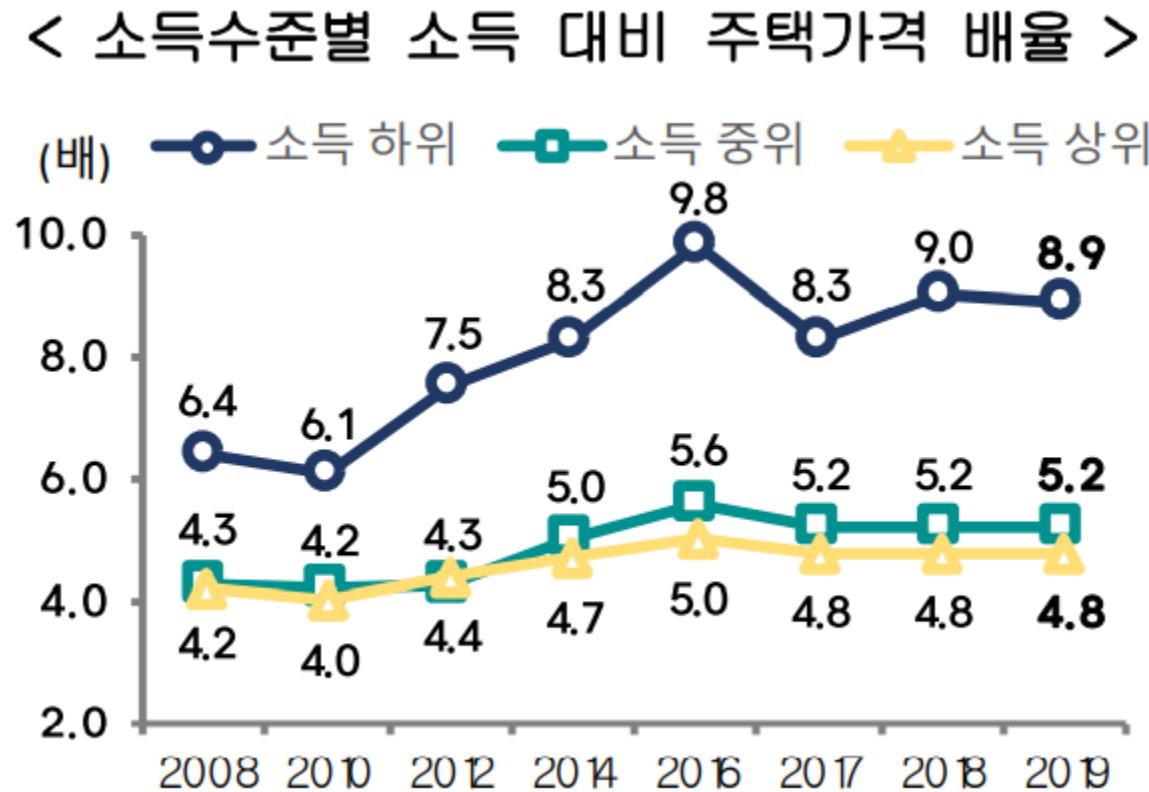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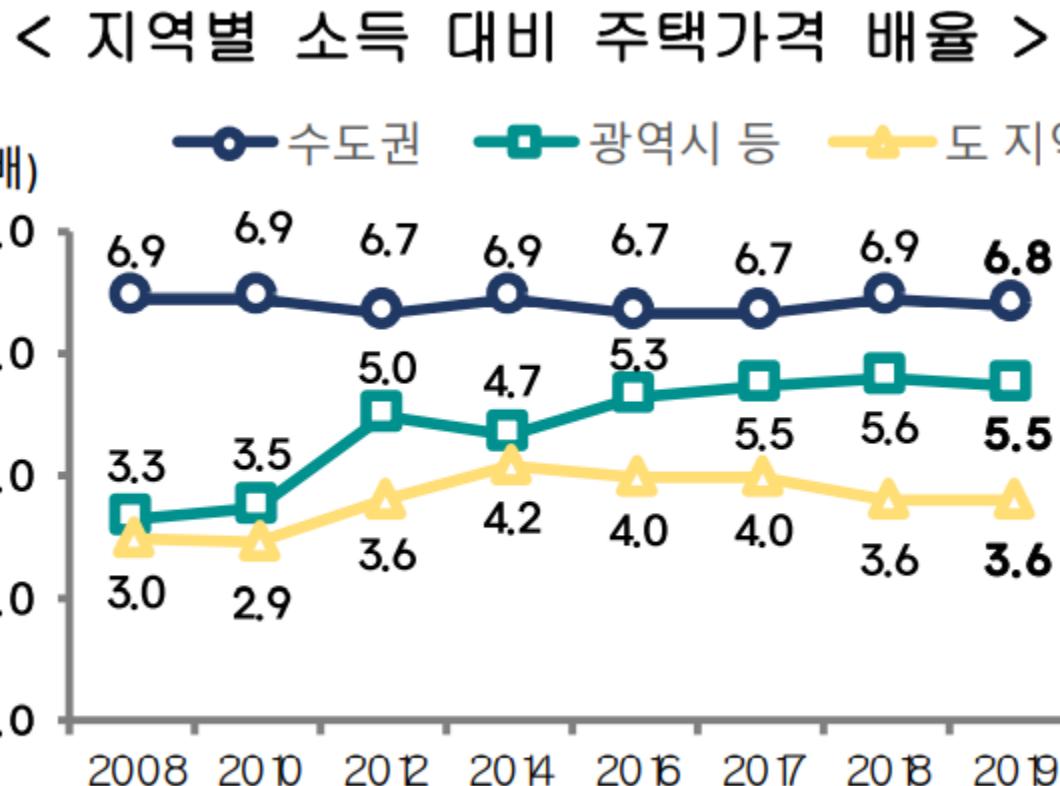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19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3.00점으로 전년 대비 0.02점 상승하였으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연립주택 순임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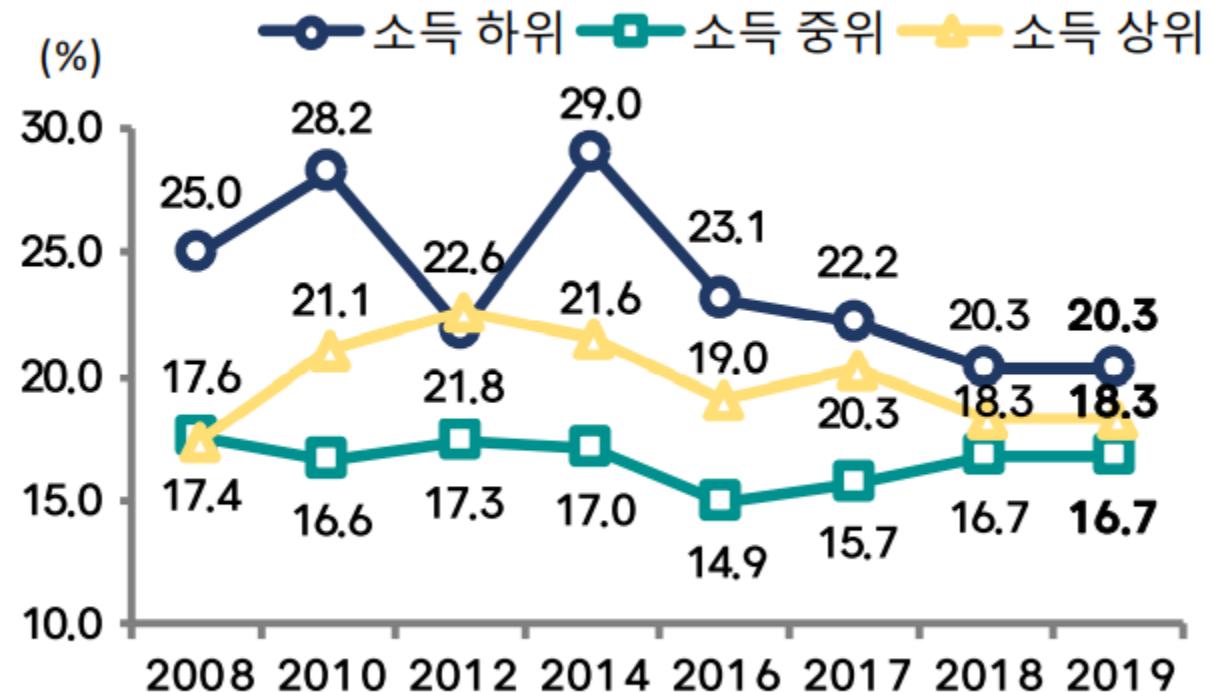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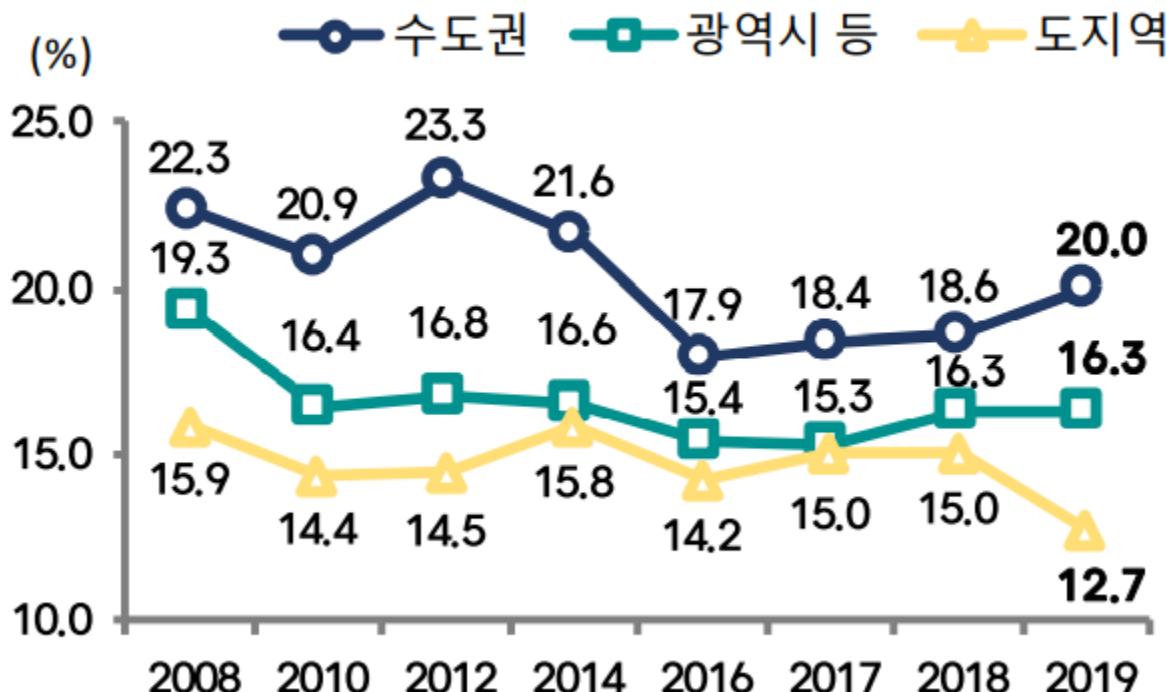
우리에게 주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어떤 의미여야 하나?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택의 소유 보다는 임대? 임대료의 적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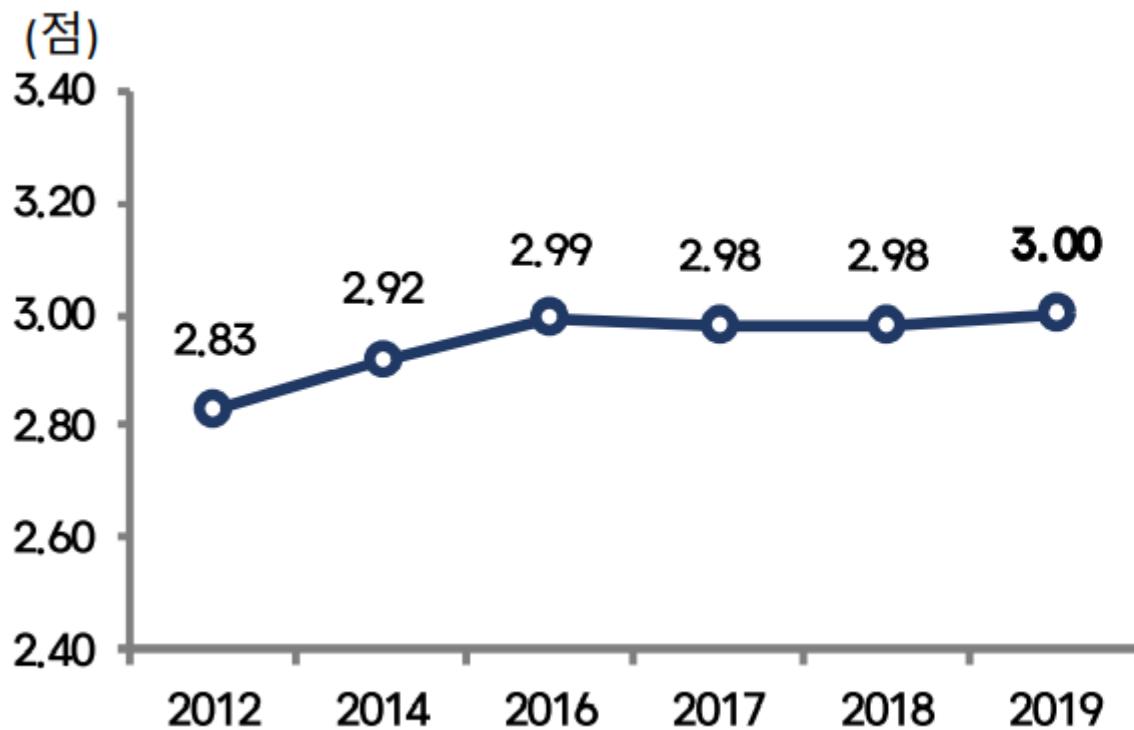
< 지역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 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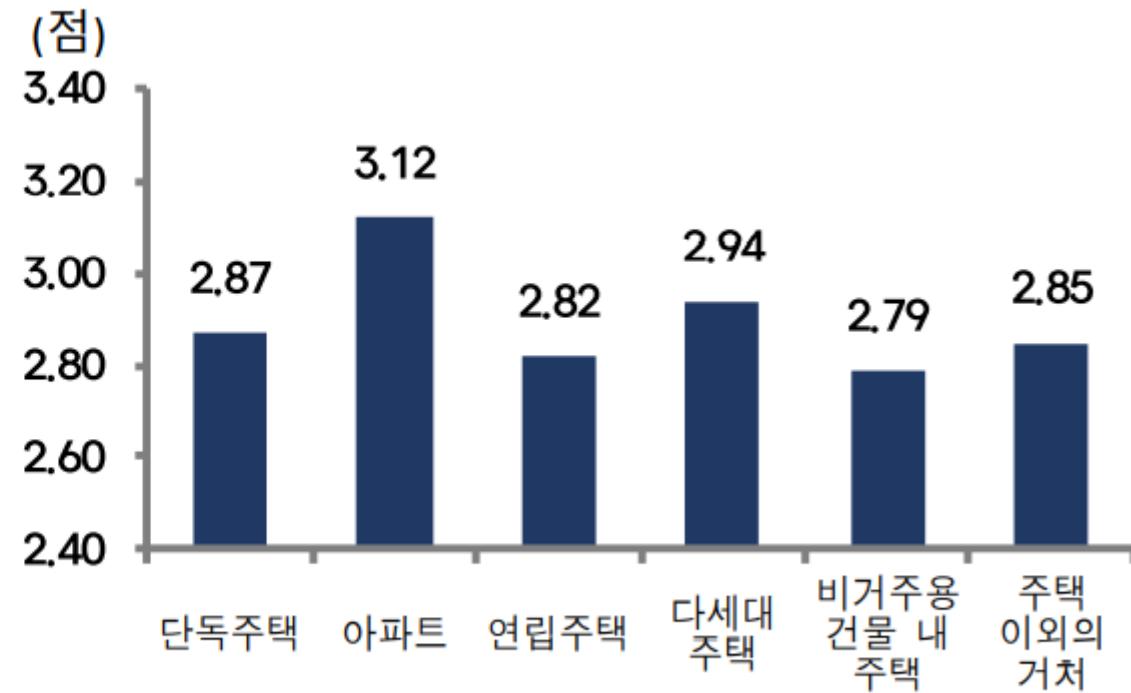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아파트 거주가 대중의 꿈?

< 주택 만족도 >



< 주택유형별 주택만족도(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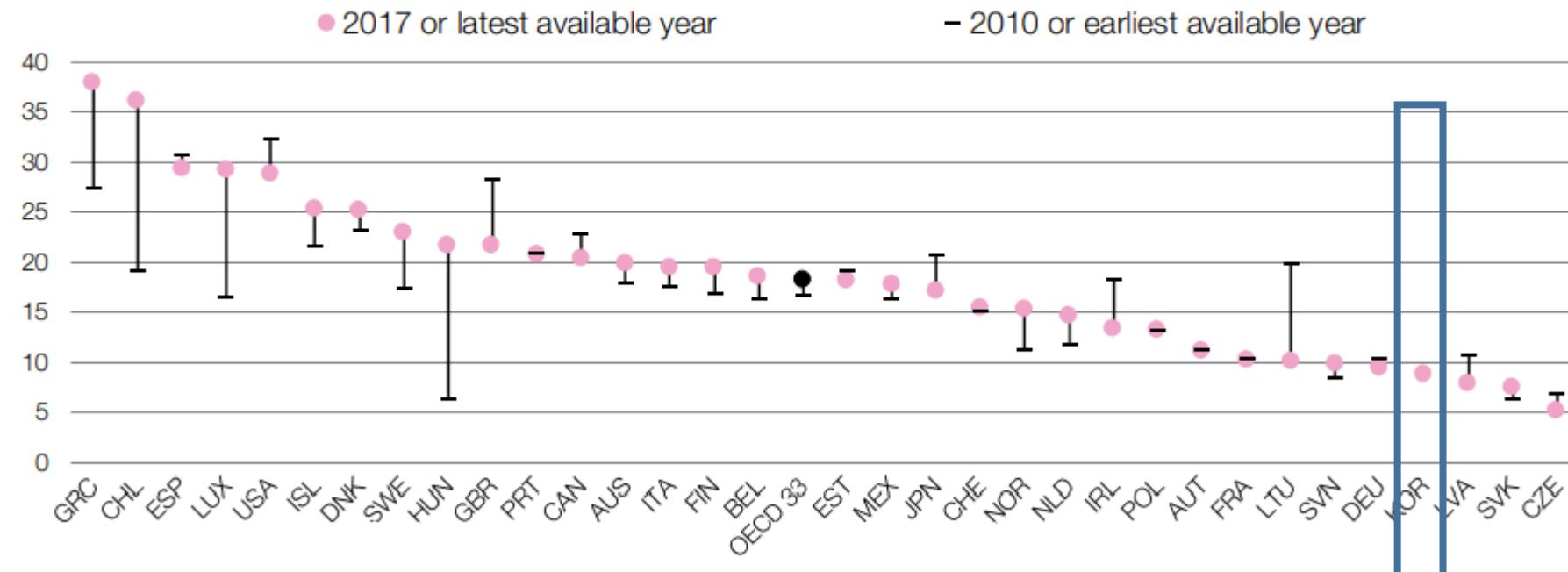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선진외국도 주거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저소득 가구 1/5이 소득의 40%를 주거비용으로 지출

Figure 4. Nearly 1 in 5 lower income households in OECD countries spend more than 40% of their income on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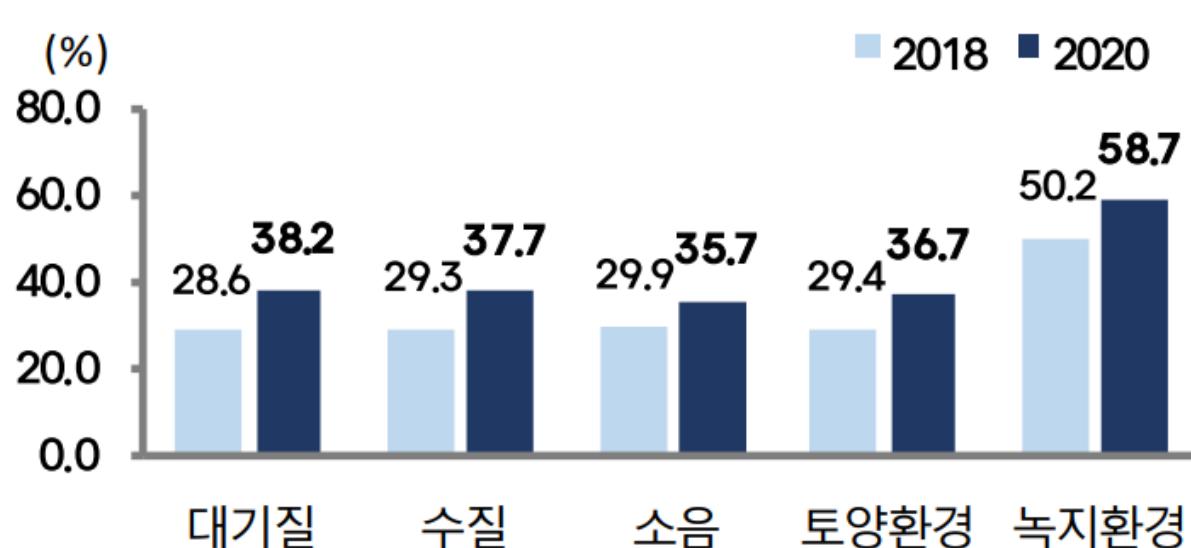
Housing cost overburden, share of households in the bottom 40% of the income distribution spending more than 40% of their disposable income on total housing costs, percentage



Source: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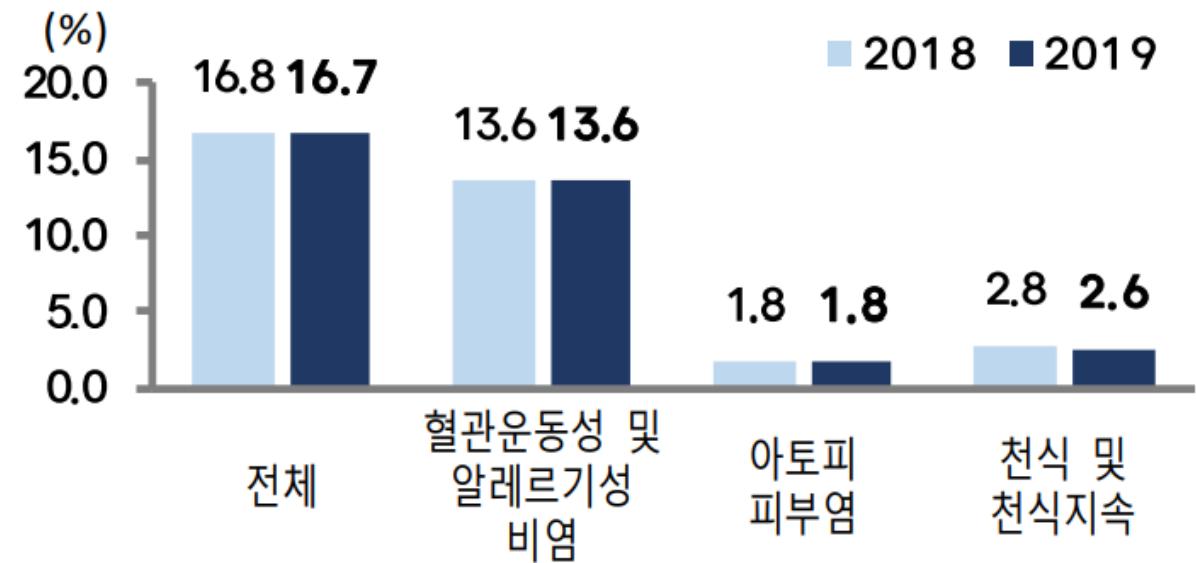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은 30%대에 그친다

< 생활환경 만족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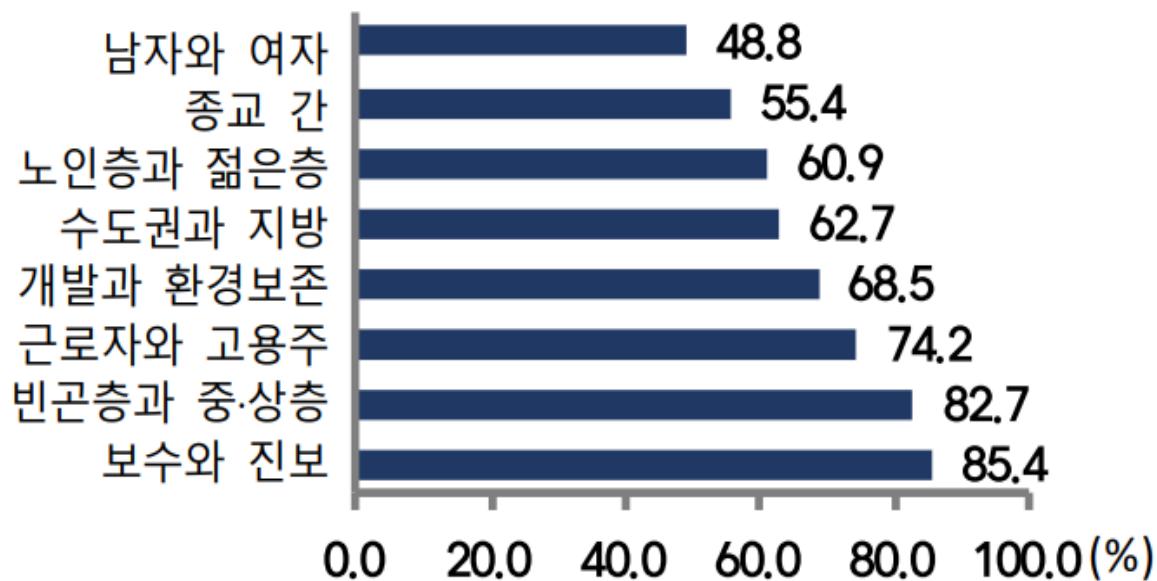
< 환경성 질환 유병률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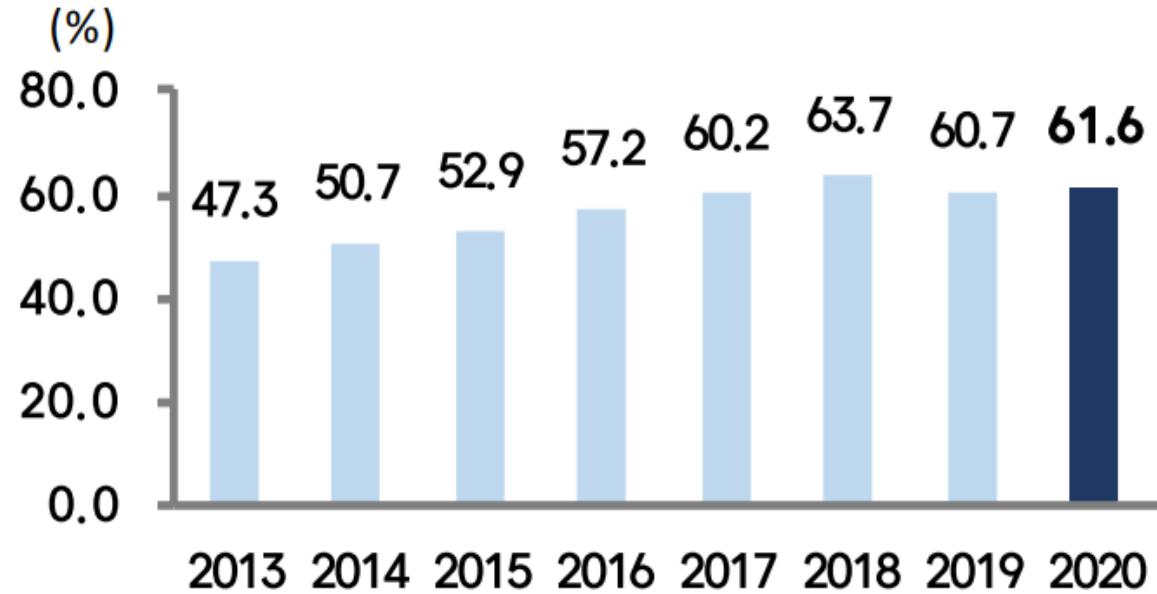
보수와 진보, 빈부, 노사 갈등이 중심인 사회

< 사회갈등 인식(2020)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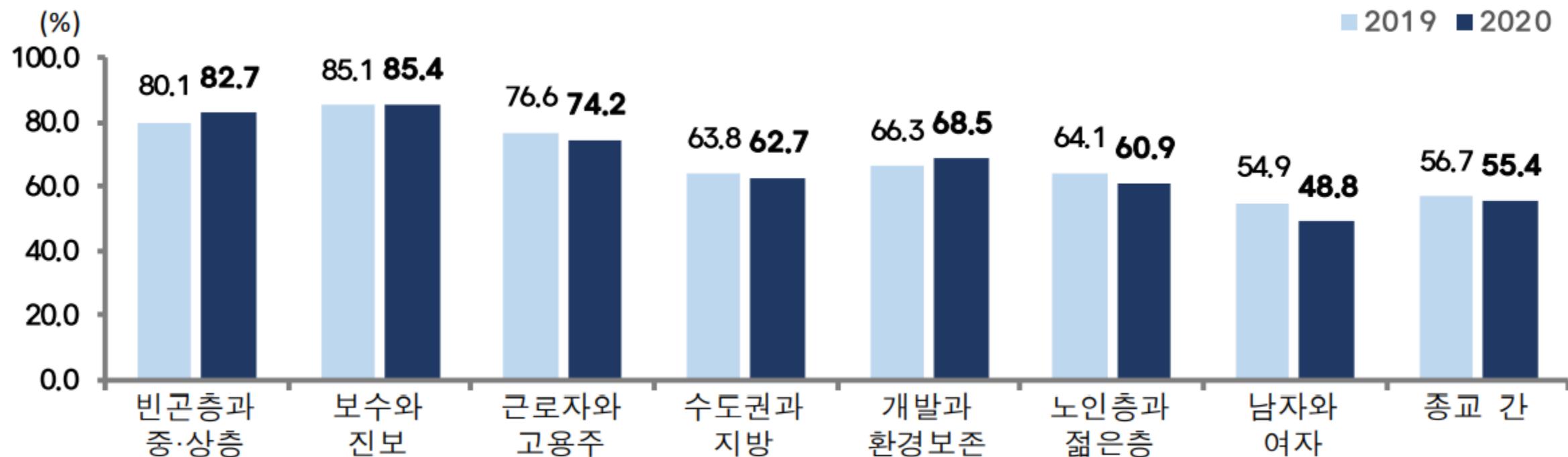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미래 사회의 갈등은? 세대, 남녀, 동성애, 종교 ... 어떤 갈등에 대비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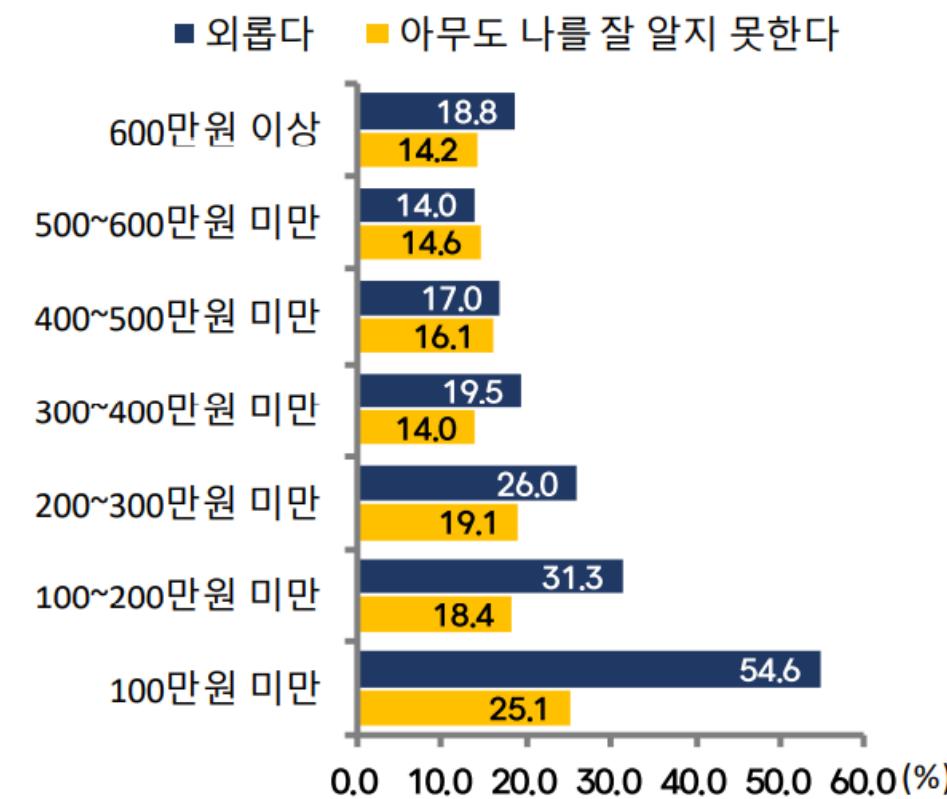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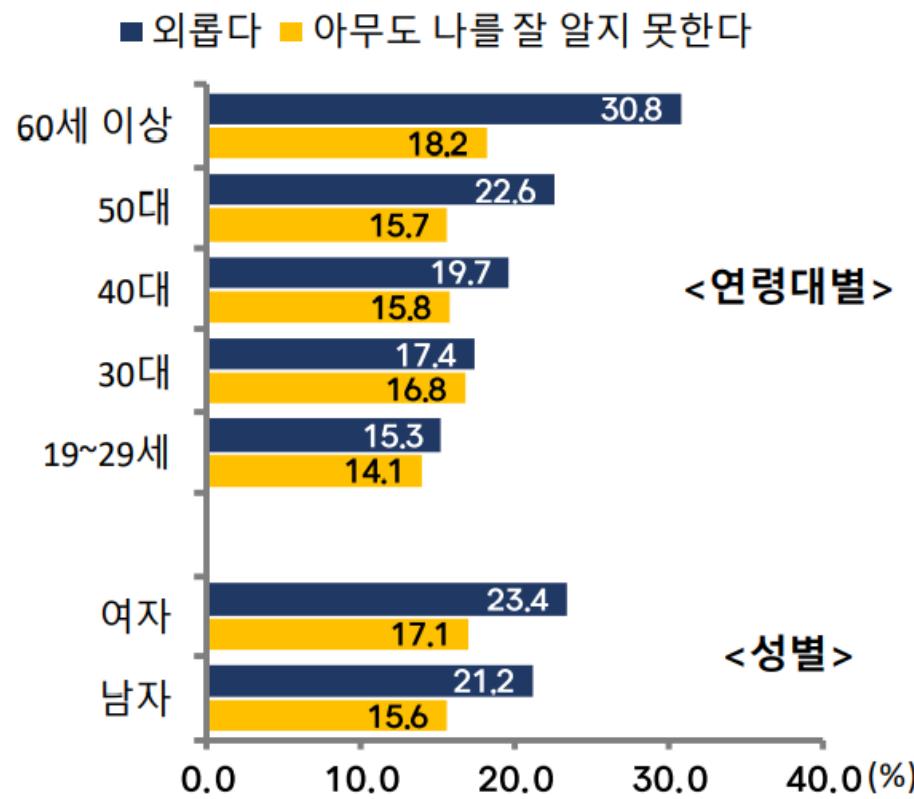
< 사회갈등 인식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나이들수록 외로워지는 사회 가난할수록 외로워지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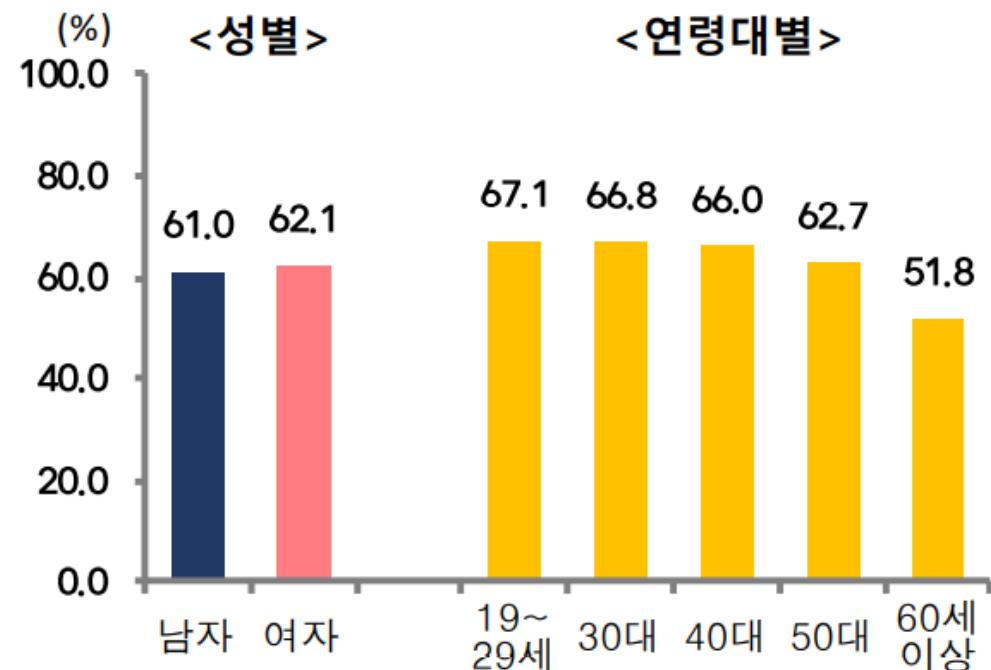
< 성별 및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감(2020) > < 소득수준별 사회적 고립감(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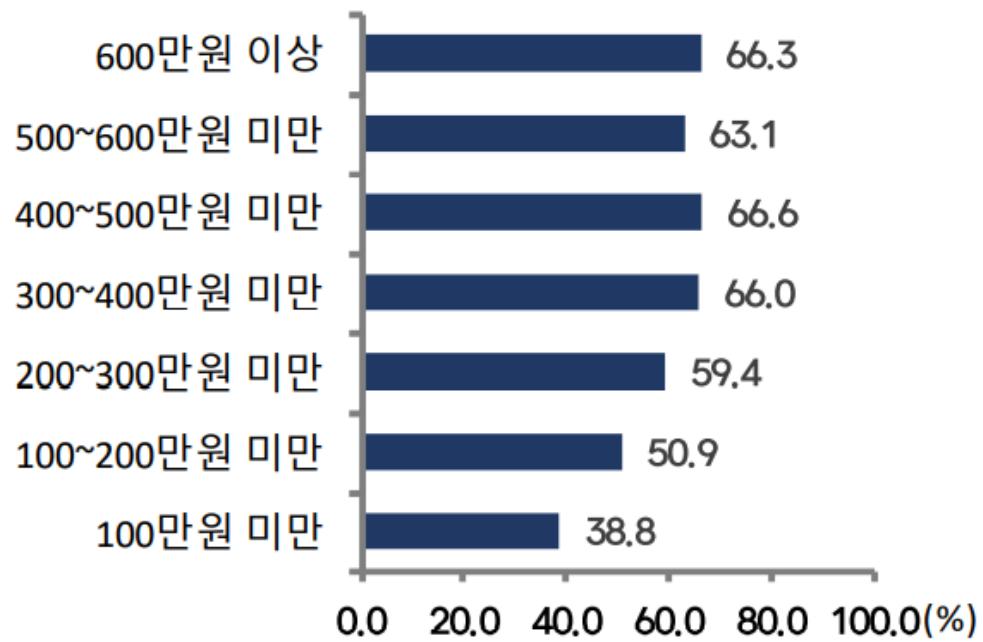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나이들수록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 가난할수록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

< 성 및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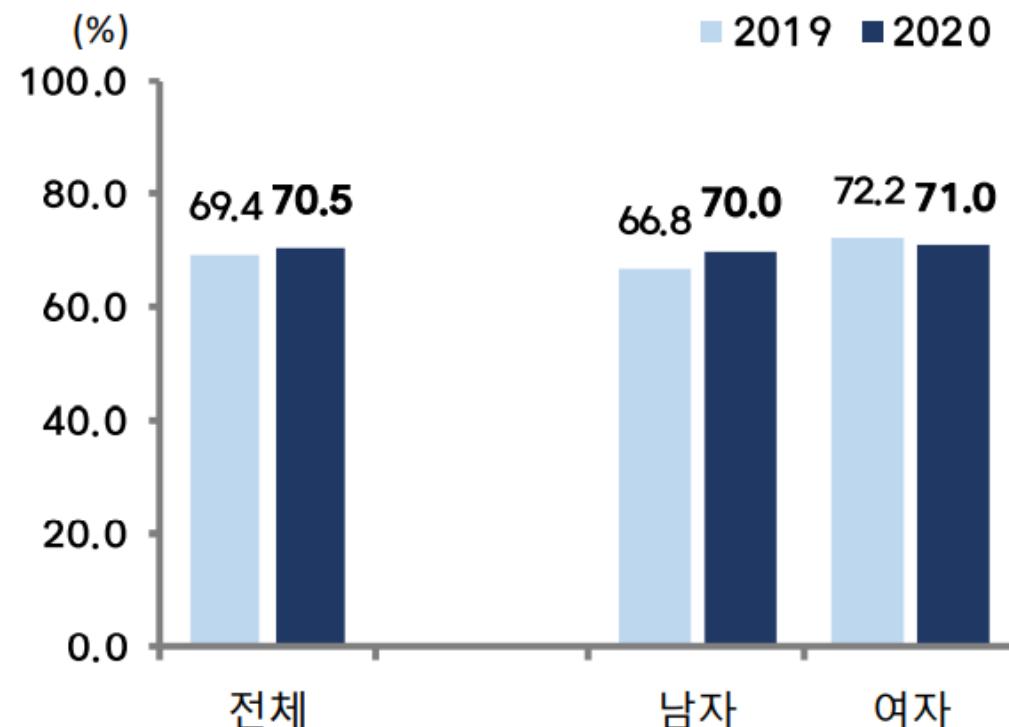
<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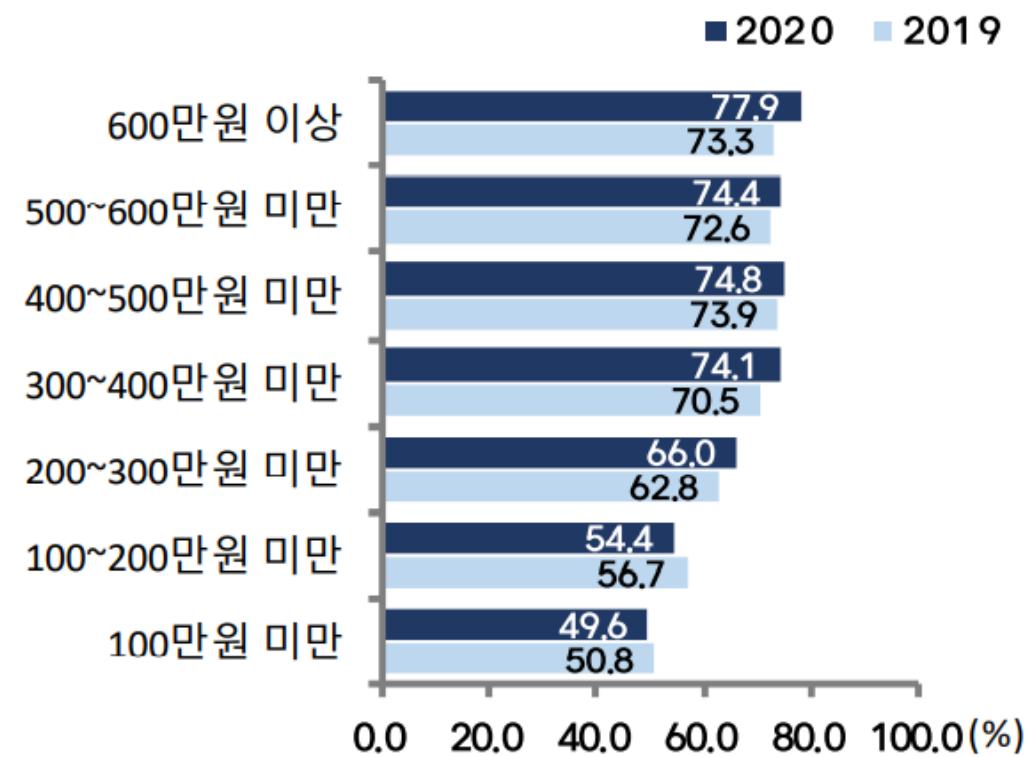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가난할수록 삶이 긍정적이지 못한 사회

< 성별 긍정적 정서경험 >



< 소득수준별 긍정적 정서경험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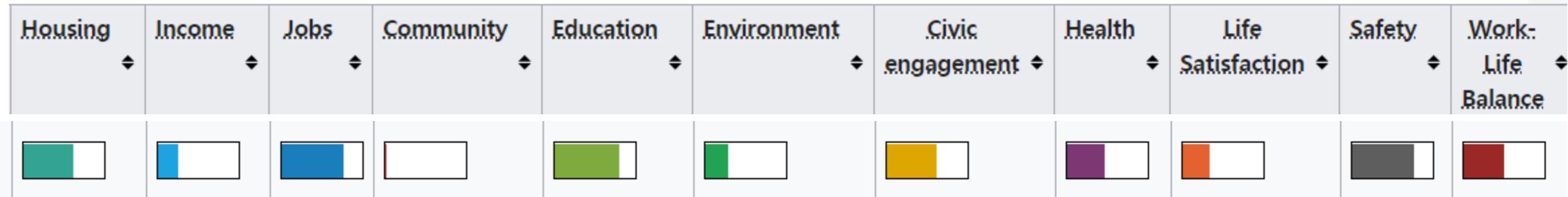
OECD Better Life Index for 2020

OECD 40개국 중
한국 삶의 질 30위
(소득 26위)

Rank	Country
1	Norway
2	Australia
3	Iceland
4	Canada
5	Denmark
6	Switzerland
7	Netherlands
8	Sweden
9	Finland
10	United States
11	Luxembourg
12	New Zealand
13	Belgium
14	United Kingdom
15	Germany
16	Ireland
17	Austria
18	France
19	Spain
20	Slovenia
21	Estonia
22	Czech Republic
23	Israel
24	Italy
25	Japan
26	Slovak Republic
27	Poland
28	Lithuania
29	Portugal
30	South Korea

OECD Better Life Index for 2020

한국의 취약한 점? 커뮤니티 환경 삶의 만족도



GDP per capita

\$34,865 (nominal, 2021 est.) \$47,026 (PPP, 2021 est.)

GDP per capita rank

26th (nominal, 2020) 24th (PPP,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1



UN SD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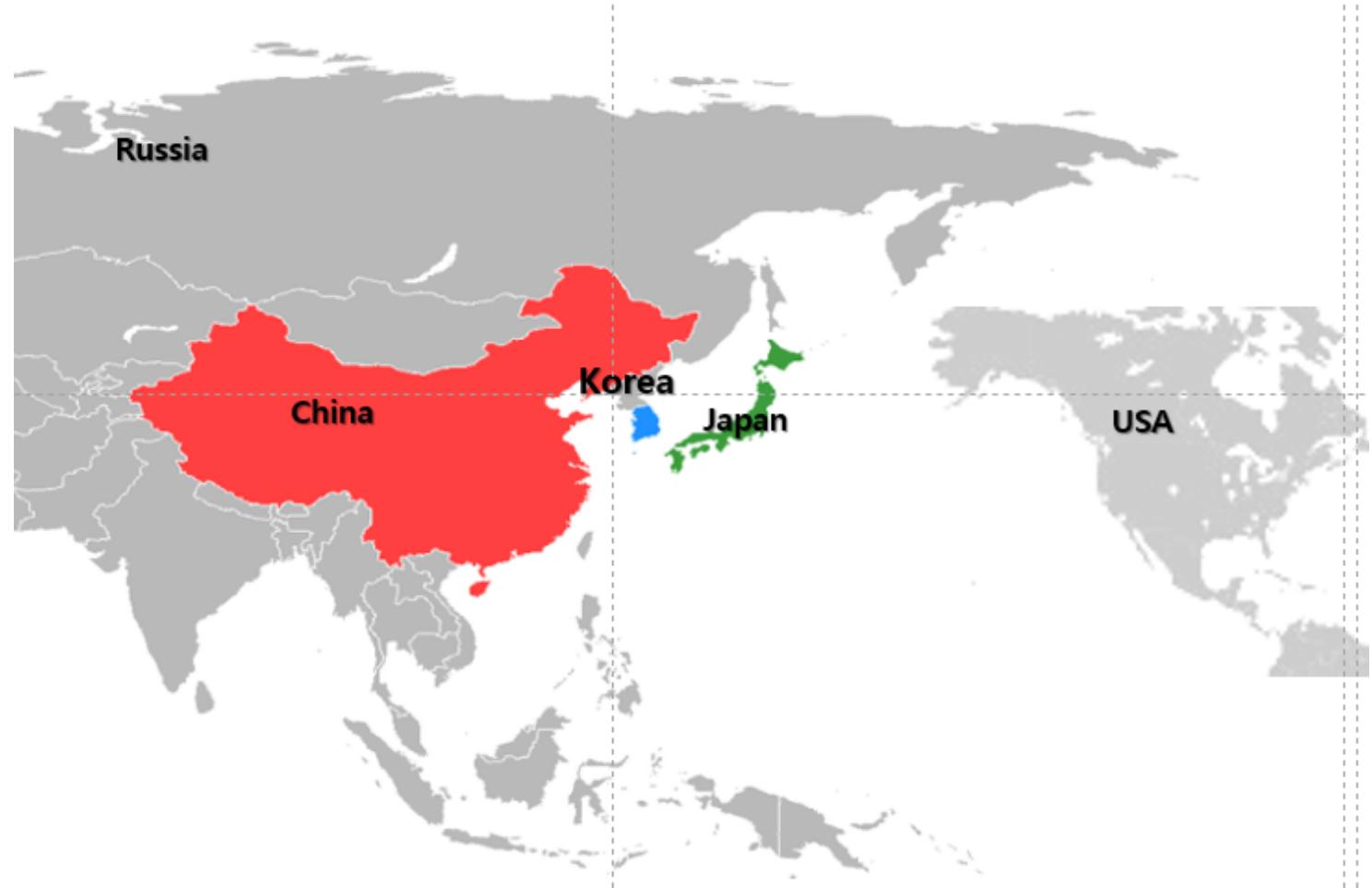
한국 행복지수 95개국 중 50위

"1인당 GDP 3만불 시대에도 韓 행복지수는
중국과 비슷"

'2021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지난해 1위는 핀란드
상위권에 북유럽국 포진...일본 40위·중국 52위
2018~2020년 합산 순위는 149개국 중 한국 62위

한국의 Trilemma

- 미, 중, 일, 러 4강에 둘러싸인 한국
- 분단 한국
- 갈등과 분열의 한국



감사합니다